

LG U+, CJ헬로 품고 단숨에 유료방송 ‘넘버 2’

CJ ENM과 8000억 매매계약
업계 1위 KT에 6%P차 추격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
본격 5G 시대 선도할 것”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확정했다. 인수 협상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이다. ▶관련기사 10면
LG유플러스는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지분에 1주를 추가해 80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으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CJ헬로는 420만여 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다. 유료방송 가입자 364만 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로 가입자가 780만 명까지 늘어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4.43%까지 올라 SK브로드밴드(13.97%)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선다. 1위인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 합계 30.86%)과도 6%포인트 차로 격차를 좁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방송 서비스와 5G를 기반으로 한 AR·VR 서비스에 AIoT(사물의 인공지능화) 등의 서비스를 접목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 부사장은 “이번 지분 인수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 융합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 간담회는 중소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웨어러블 심전도측정기·모바일 고지서... ‘ICT 규제 샌드박스’ 첫발

임상시험 온라인중개도 허용
과기부 “원격의료와는 무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호 규제 샌드박스’가 열렸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록장치, 모바일 전자고지서,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심전도 기록장치를 놓고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질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통한 효과증명(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1월 17일 1차 신청된 총 9건 중 3건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질환 관리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다. 나머지 6건은 3월 개최 예정인 2차 심의위에서 결정된다.
이번 1호 샌드박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KT와 카카이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예비군 훈련통지서, 여권 만료기간 고지, 지방세 납부용지 등의

각종 정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지서의 대상자 도달률을 높이고 연간 약 450억 원의 고지서 발송 제반 비용 등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것은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규제해 왔다.
반면 원격의료가 사실상 허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증특례를 받은 벤처기업 휴이노의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활용해 내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의사는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의사가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을 안내하는 것을 의사의 진단으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진단과 처방이 포함돼야 한다”며 “원격의료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규제 샌드박스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명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文 “최저임금에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반영”

청와대서 첫 간담회 열어...최저임금 문제점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최초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과도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어려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올해가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독자적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dm@

“추가 임금 따른 경영상 어려움 엄격하게 판단해야”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모호 논란

〈신의 성실의 원칙〉

회사 부담 적다며 기사 손 들어줘
재판 불확실성 해소 안돼 혼란 예고

정기상여금과 연장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지급할 경우 기업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신의칙 원칙(경영상 어려움 초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이는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기준을 밝힌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

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 기준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추가 법정수당 규모 4억 원은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에 불과하다”며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

한 정기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 사내방송 깜짝 등장 “작년 정기인사 힘든 결정”

10분짜리 영상으로 임직원 소통
승진 1년차... 조직개편 등 소회
그룹 변화·신임 간부 역할 당부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유연한 변화가 필요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대대적인 그룹 조직개편과 인사쇄신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직원들 앞에서 직접 밝혔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최근 진행한 ‘현대기아차 신임 과장 및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연수’에서 현대차 그룹이 직면한 변화와 조금 간부들의 역할, 나아갈 방향점 등을 당부했다. 연수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직원들이었다.

사전촬영 영상을 통해 등장한 정 부회장은 수소전기차 넥소의 옆에 선 채 인사말을 시작했다.

정 부회장은 “먼저 신임 과장 및 책임연구원들의 승진을 축하한다”며 “나도 작년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해 이제 1년 차”라며 재치 있는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인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직접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협약식에 나섰다. 협약식을 마친 정의선(왼쪽부터) 부회장과 PGA투어 제이 모나한(Jay Monahan), 타이거 우즈 재단의 타이거 우즈(Tiger Woods) 선수, 제네시스 사업부 맨프레드 피츠제럴드(Manfred Fitzgerald) 부사장의 모습.

를 통한 조직개편 관련 발언에서는 진중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를 전후해 대대적인 쇄신인사를 단행했다. 5명의 부회장이 자리를 옮기거나 일선에서 물러났고, 20여 명에 달했던 사장단 가운데 5명도 회사를 떠났다. 해외 권역본부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뒤따랐다.

정 부회장은 “저로서도 힘든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과장

과 연구원 여러분은 전문성과 유연함을 가졌다. 잘 대처해 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영상 후반에는 정 부회장이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 내에서 직접 수소전기차 넥소를 시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넥소의 다양한 장점을 소개하던 그는 “이걸 누가 만들었지?”라며 재치 있는 분위기도 연출했다.

현대차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쳤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권 정 부회장은 운전석에 앉아 한 손으로 스마트폰

을 통해 이메일을 확인하며 “운전하면서 오토웨이(사내 인트라넷)를 검색하고 이메일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우리 연구소에 과속방지턱이 참 많은데 이때마다 넥소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줘 참 편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1일 현대기아차 사내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재계 관계자는 “10분 남짓한 영상이지만 사실상 그룹 총수 역할을 하는 정 부회장이 임직원들 앞으로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PGA투어 제네시스 오픈 내년 ‘인비테이셔널’ 격상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북미 현지시장에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알리기에 직접 나섰다. 제네시스는 PGA투어, 타이거 우즈 재단과 함께 제네시스 오픈을 ‘오픈(Open)’에서 ‘인비테이셔널(Invitational)’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 부회장, PGA투어 커미셔너 제이 모나한과 타이거 우즈 재단의 타이거 우즈 선수,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제네시스사업부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네시스 오픈은 2020년부터 메모리얼 토너먼트 및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비테이셔널 대회로 한 단계 격상된다. 대회 공식 명칭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골프라는 종목이 갖는 상호 존중, 품격, 혁신성은 제네시스가 중시하는 가치와 상통한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고객과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파트너십을 견고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3기 신도시 지휘관’ 차기 LH 사장 누가 될까

오늘 후보 공모 마감 ‘공민배·김재정·변창흠’ 하마평... 박상우 사장, 연임 가능성 축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15일 오후 6시 사장 공모를 마감한다. LH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LH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LH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임추위 구성을 서면 결의했다. 임추위 위원은 9명으로 비상임이사 5명, 선임위원 4명이다.

올해 LH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차기 수장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에도 LH의 역할은 크다.

LH는 모든 3기 신도시 지구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브랜드 뉴 시티’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약 687만 평에 달하는 토지 계획이 새로운 수장의 손

에 달린 셈이다.

LH 조직 자체 규모도 크다. 올해 LH의 경영계획안을 보면 자산은 2018년보다 8000억 원 증가한 178조6000억 원이다. 부채는 3조3000억 원 줄어든 129조2000억 원 증가한 23조3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공민배 전 경남 창원시장, 김재정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변창흠 전 SH공사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모 마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상우 현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1954년생으로 행시 22회 출신이다. 1994년에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이어 대한지적공사 사장, 남해대학 총장 등을 거쳤다. 김재정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1963년생으로 행시 32회 출신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했다. 변창흠 전 SH공사 사장은 1964년생이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따지기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인물이어야 설립 취지에 맞게 LH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확대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로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화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별표 11의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화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참고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미만 여부 판단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또는 >> 건강디딤돌 >> “자주 찾는 항목” >> 수시접수

참고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19년도 측정 및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측정 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신규 측정 사업장 : 과거 3년 동안(2016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	측정 비용의 70%를 지원 (사업장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비용 전액 지원(1차, 2차 검사항목)

참고 예산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마감될 수 있음(홈페이지 공지 예정)

사업 절차



‘경영상 어려움’ 어느 선까지 볼지 재판부 따라 ‘복불복’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은 여전히 ‘신의칙’ (信義則)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는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신의칙은 이후 5년간 법조계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전합 판결 이후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애초에 통상임금 신의칙 개념을 판시한 이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특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라는 조건에 대해 재판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혼란은 가중됐다.

시영운수 통상임금 상고심은 이러한 배경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시영운수 버스 운전기사 박모 씨 등 22명은 2011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를 전합에 부쳐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최근 소부(小部) 대법관 4명씩 구성된 재판부(로)를 돌려보내 선고하기로 했다.

이미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선고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번 재판은 시영운수 개별 사건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대신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1, 2심은 “회사가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신의칙 인정’ 명확한 정리 없어 여전히 하급심 주관적 판단 의존
순이익 등 지표비교는 긍정적

반면 대법원은 시영운수의 매출액과 인건비 비중, 이익잉여금, 영업이익 흐름 등을 평가해 박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선고 결과를 뒤집었다.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원심이 산정한 7억8000여만 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4억여 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신의칙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을 판단할 기준으로 일부 재무지표를 제시했으나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서 활용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는 “매출액과 인건비 등은 이미 하급심에서도 비교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인정하기 위해 어떤 통일된 재무지표를 활용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가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신의칙은 법관의 자의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여러 통상임금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온 만큼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원칙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이 종래보다 진일보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임금 사건은)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은 임금 채권이 발생한 2013년도의 이익잉여금과 영업이익 흐름, 회사의 경영 환경 등 여러 지표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장효진 기자 js62@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신의칙 소송

대법원	
기업명(피고)	판단결과
아시아나항공	1심 원고 승소 2심 패소
현대중공업	1심 원고 승소 2심 패소
만도	1심 원고 패소 2심 승소
현대미포조선	1심 원고 승소 2심 패소
금호타이어	1심 원고 승소 2심 패소
고등법원	
기아차	1심 원고 승소
현대제철	1심 원고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1심 원고 패소

“기업에 추가수당 떠넘기면 국가 경쟁력 치명타”

대법원이 시영운수업체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판결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번 판결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르게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앞서 2015년 판결에서 “상여금의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현대미포조선·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뀌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이 실적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대

통상임금 판결 재계반응

“계류 중인 25곳 소송 패소엔 임금·지연이자 등 8兆 부담”

제철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기존 1929억 원에서 당기순손실 405억 원으로 정정됐다. 총당금을 그만큼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재계가 향후 수조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이달 말 통상임금 2심 소송 판결을 앞둔 기아차의 경우 이번 판결이 약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2017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1심)

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통해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 원에 달한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 부사장은 11일 담화문을 통해 “회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응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 측에 호소한 바 있다.

이같은 ‘통상임금 소송 폭풍’에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종업원 450명 이상) 35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이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임금과 지연이자 등은 총 8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50년의 자부심, 세계로! 미래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5가지 약속!

안 전
사고는 절반으로
안전은 두 배로!

소 통
따뜻한 공기, 맑은
좋은 일자리 플랫폼!

신뢰
청렴도, 고객만족도
 으뜸기업!

선 도
남북도로
새로운 시작

혁신
미래기술 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

1969.2
한국도로공사 창립

2019.2
창립 50주년

1970.7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1.1
최초의 휴게소 개설

1980.5
통합채산제 실시

1984.6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1994.8
통행료 수납 기계화

1994.9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2007.12
하이패스 전국 구축

2009.3
후불 하이패스카드 도입

2011.11
졸음쉼터 도입

2018.12
남북 도로 연결 착공식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뽑은 한국도로공사 10대 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문 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장기적으로 인상으로 가야”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간담회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약속 안 지켜” 文 “대기업 유통산업 진입 자체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를 전제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는 이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

다.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지금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은행

권 같은 데서 담보 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줘 이에 대한 체계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며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 2대 보험만이라도 우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4대 보험을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지만,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유통성을 남겨 두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체크카드

제로페이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라벨갈이의 심각성 △소상공인지원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 오찬을 같이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최저임금은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

완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 체계를 만드는 것과 유통산업에 대기업이 너무 과잉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CPTPP 비공식 예비 협의 진행” “가입 전제로 한 건 아니다... 6.2조 풀어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실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로,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했다. 기존 11개국 외의 국가가 CPTPP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 개방은 물론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6조2000억 원을 풀어 기업의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

프라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초고위험국가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 손실 발생에 대한 면책특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특별계정 1조 원을 올 상반기 신설하며,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국가에 대해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을 2조 원 확대한다. 한·아세안(1000억 원), 한·유라시아(1000억 원) 등 신북방·신남방 인프라 개발 펀드도 올 상반기 개설해 올해 사업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의 고배도 져다. 해외 수주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존엄사법 1년... 3만6000명 ‘연명치료’ 거부

결정자 10명 중 4명 암환자 11만5000명은 의향서 작성 낙태 건수 9년새 5분의1로 ↓ 75% “낙태 금지법 개정해야”

지난 1년간 말기 암환자 등 임종과정 환자 3만6224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는 크게 줄었다.

◇크게 는 연명치료 결정 =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연명치료 결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1년간 11만5259명이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3만6224명이 연명치료 결정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향후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밝혀 두는 행위로, 연명치료 결정은 임종과정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거

부하거나 받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등으로 실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다. 지난해 연명치료 결정제도가 도입돼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간 결정자 10명 중 4명은 암환자였다. 단 아직까진 환자 본인보다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연명치료 결정 이행 건수 중 67.7%는 가족에 의한 것이었다.

◇크게 준 낙태 = 2017년 1년간 낙태 건수는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2008년과 비교하면 5분의 1로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다.

조사 결과, 756명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였다.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1084건이었다. 1인당 1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30.0%)가 가장 많았고 20~24세(27.8%), 30~34세(22.8%)가 뒤를 이었다. 법률혼 상태인 비율은 37.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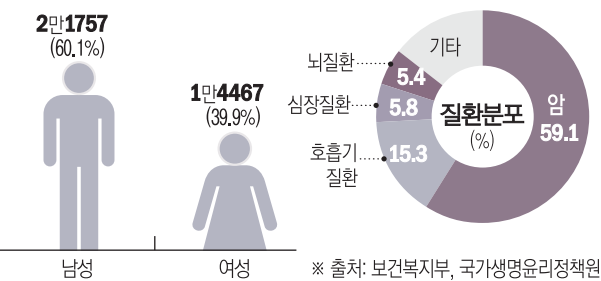
추세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꾸준히 줄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2017년 추정치는 4만9764건, 중절률은 4.8%였다. 2008년만 해도 두 수치는 각각 24만1411건, 21.9%에 달했다.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가임기 여성 감소와 피임 확대 등이 꼽힌다.

제도에 대해선 응답자 중 75.4%가 낙태를 금지한 형법 제269·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처벌 대상이 여성뿐이고,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해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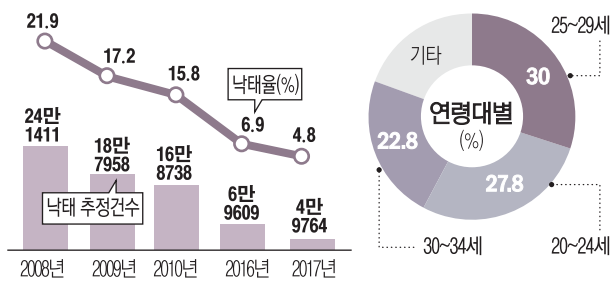
연명치료 유보·중단 환자 현황

(단위: 명)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낙태율 추이

(단위: 건, 15~44세 여성 1만 명 온라인 조사)



원전 3기 맞먹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난해 원전 세 기와 맞먹는 양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급돼 전력 판매를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양은 2989MW다. 원전 3기의 설비 용량(3000MW)과 맞먹는다. 정부가 세운 보급 목표(1700MW)보다도 72% 많다. 재작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량은 1333MW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만5547MWh로 전년(3만817MWh)보다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은 14만8427MWh에서 13만3506MWh로 10.0% 줄었다.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새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3분의 2가량(2027MW)이 태양광 설비였다. 이어 바이오에너지(755MW), 풍력(168MW)이 뒤따랐다.

태양광 설비 설치 장소는 건축물(40.2%), 임야(25.4%), 농지(21.4%)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건축물 태양광 비중은 15%포인트(P) 커지고 임야 태양광 비중은 12%P 줄었다. 지난해 임야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1.0에서 0.7로 줄면서 임야 태양광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건축물 태양광은 기존 가중치(소규모 1.5, 대규모 1.0)를 유지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남성만 지원 가능...결혼·출산 여성 제외”

고용 성차별 신고 4개월간 122건

채용 시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고용상 성차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설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올해 1월 9일까지 총 122건이 접수됐다. 지난 2년간 신고된 101건(2017년 39건, 2018년 62건)보다 많다.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 내 성차별이 발생하면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 73건, 실명신고 49건이었다.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 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 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 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이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수사권 갖는 자치경찰 5개 시도 도입… 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 서울·세종·제주 등… 시·도지사에게 임명권 부여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전담… 檢 “무늬만 자치경찰” 반발

당정청은 14일 자치 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 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다. 자치 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수사권을 갖고 생활 안전과 민생 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 경찰을 두는 것이다.

당정청은 시·도지사에게 자치 경찰 본부장 및 자치 경찰 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 경찰은 생활 밀

착형 사무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현장 초동 조치권도 갖게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밀착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세종시가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결정한다.



한국당 당권 레이스 시동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왼쪽부터), 오세훈, 황교안 등 당 대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서약식을 하고 있다. 뉴스시

모디 인도 총리 방한… 22일 정상회담

한국 ‘신남방정책’·인도 ‘신동방정책’ 추진 방안 논의

나렌드라 모디(사진) 인도 총리가 21, 22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후 국빈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며 “모디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15년 이후 4년 만으로,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모디 총리는 두 차례 방한한 바 있다. 2007년 5월 구자라트주 총리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데 이어 2015년 5월 총리 자격으로 방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그간 다져 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종전의 교역·투자,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인도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당시 합의했던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당정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12 종합 상황실에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합동 근무 체계를 갖춰 범죄 발생 등 긴급·위급 상황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상호 협조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서 검경 간 갈등이 예상된다. 검찰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자치 경찰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 경찰제 안은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 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 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이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정 기자 jhj@

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영향 크지 않아”

소상공인 임대료 상승 우려에
與 의장 “기우에 불과” 논란



20.0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은 최소화했다”며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공개한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41% 인상됐다.

조 의장은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 질서를 옹인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역사별 해소,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



교보생명 60년의 믿음 교육이 미래다

아이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변치않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교육보험을 다시 선보입니다.

교육자금을 보증하는 신개념 변액교육보험
미리 보는 (무)교보변액교육보험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 대학학자금, 어학연수 비용, 주거 비용 등 목적에 맞게 필요한 자금 마련 가능

[튼튼한 최저교육자금 보증] 운용성과에 관계 없이 최저교육자금을 보증하고,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많은 교육자금 지급

[성장기에 다양한 질병 보장] 특약으로 치아, ADHD, 암 등 다양한 질병보장에 수술 및 입원까지(해당특약 가입시)

KYOBOL
교보생명

*최저교육자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직립금, 교육자금 보증, 미래준비자금 보증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 등이 매월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양보장기(시원은 보험계약일(부활(요약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확인필 1-1808-20 상품지원팀(2018.08.2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3198호(2018.8.24)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유예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지도부 경선에 나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까지 징계를 유예했다.

한국당은 14일 윤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확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의 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다.

윤리위는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를 유예한 두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한일한 썬스 결정”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종현 기자 lamuziq@

연준 ‘긴축 브레이크’에도… 폭주하는 强달러

美 기준금리 인상 유보 밝혔지만
달러는 FOMC 이후 1.5% 상승
글로벌 약재 산재…달러 이어질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유보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로 유지하기로 하고, 향후 인상에 '인내심'을 보일 것이란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CNN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일례로 일본은 수십 년간 마이너스(-) 금리와 디플레이션, 경제 부진으로 인한 엔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달러는 이러한 시장의 통념을 완전히 뒤



집었다. CNBC에 따르면 달러는 지난해에만 8.4%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FOMC 이후에는 다른 통화 대비 1.5% 올랐다. CNN은 “통화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 1.5% 상승은 매우 극적인 상승세”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립금리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 파월 의장과 연준이 올해 들어 완전한 ‘비둘기파’로 돌아섰

지만 견실한 미국 경제지표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 등이 겹치며 달러 약세 전환에 실패했다.

지속하는 강달러 현상에 미국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올리고 있는 애플, 보잉, 캐터필러, 3M 등 다우·S&P500 지수에 속한 다국적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지난해 말 큰 부진을 보였다. 애플은

2018회계연도 4분기(7~9월)까지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019 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와 0.5% 줄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건 2016년도 4분기 이후 9분기 만이다. 건설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어닝 쇼크로 주가가 급락했다.

CNN은 “달러 강세와 더불어 유럽, 중국, 일본 및 다른 글로벌 시장의 경제 상황 악화도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들의 올해 1분기(1~3월) 실적은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달러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FXTM의 자밀 아흐마드 글로벌 외환 투자 전략 책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실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달러화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지속한다면 달러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K자산운용의 보리스 스크로스버그 운용 책임자도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약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달러 랠리의 연장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만큼 이대로 좌시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달러 강세를 부추긴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려는 미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TD증권의 마크 맥코믹 외환 전략 책임자는 “미·중 무역전쟁은 달러 가치를 올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다국적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 세계가 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청바지 원조’ 리바이스 34년 만에 美증시 컴백

‘청바지의 원조’ 리바이스트라우스(Levi Strauss·이하 리바이스)가 34년 만에 뉴욕증시에 귀환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바이스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할 계획이며 종목명은 ‘LEVI’로 정해졌다. 리바이스는 IPO로 6억 달러(약 6752억 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상장 후 시가총액은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리바이스는 1971년 뉴욕증시에 상장했지만 실적 악화로 1985년 비상장 업체로 전환, 수십 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리바이스는 이번 IPO를 통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의류시장에서 인수·합병(M&A) 등으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다.

리바이스는 신청서에서 “우리는 여전히 리바이스 청바지와 도커스 카키스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나온다”며 “브랜드와 카테고리 다각화를 더욱 촉진할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업체 엘릭스파트너스의 조엘 바인스전무이사는 “리바이스는 자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재무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리바이스는 의결권이 다른 2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듀얼 클래스 주식 구조를 채택, 청바지를 발명한 창업자 리바이 스트라우스 가문이 계속 가장 큰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바이스는 여전히 세계 1위 청바지 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리바이스는 약 167억 달러 규모의 미국시장에서 1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리와 랭글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VF코퍼레이션이 4.8%로 2위다.

다만 청바지 시장은 최근 수년간 성장이 정체됐다. 많은 사람이 레깅스 등 실용적인 바지들을 점점 더 많이 입고 있어서다. VF는 노스페이스와 반스 운동화 등 더 빠르게 생산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자 청바지 사업을 분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리바이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하고 해외시장을 확장하며 자체 부티크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황을 극복해왔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악수 좀 하자는데… 로버트

루헤(오른쪽) 중국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만 보고 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은 14~15일 열린다. 3월 1일인 협상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시점을 60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베이징/AP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자들, 파생상품 기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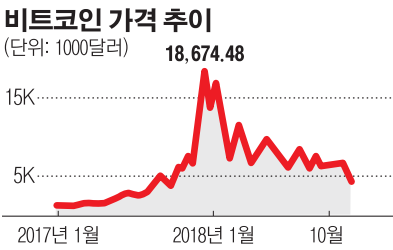
비트코인, 정점 대비 80% 폭락… ICO 기업, 손실 줄이고자 커버드 콜옵션 판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극심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 가상화폐를 보유한 업계 관계자들이 파생상품에 기웃거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승인하며 새 코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채굴업자’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투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등이 자금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인 ‘커버드 콜옵션(covered call option)’과 유사한 상품을 팔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커버드 콜옵션은 증시에서 인기 있는 파생상품으로 콜옵션을 미리 매도해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처럼 관계자들이 ‘가상화폐판’ 커버드 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비트코인 등이 미래 추가 하락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커버드 콜옵션은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변동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자금줄이라고 통신



은 강조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에 무려 1400%나 폭등했으나 현재는 당시 가격에 80% 빠진 상태다.

2017년 말 도입된 비트코인 선물과 달리 옵션은 거래 쌍방 간의 계약으로 가능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상화폐 옵션 거래는 약 6개월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옵션이 정식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이에 블룸버그는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 등에서 해당 파생상품 거래자, 투자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거래량이 월 1억2500만 달러(약 1400억 원)에서 5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커버드 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QCP는 지난달 250개 비트코인, 시가 약 90만 달러에 달하는 3개월물 커버드 콜옵션을 매입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비트코인 1개당 4200달러로 정해졌으며 당시 시장가는 3625달러였다. 만일 4월 비트코인 가격이 42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QCP에 옵션을 판매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손에 찬 채 6만 6250달러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4200달러를 넘으면 판매자는 행사가격에 250개 비트코인을 QCP에 팔아야 한다. 42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대로 QCP의 이익이 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아마추어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QCP와 같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옵션 거래를 하는 것은 높은 리스크가 따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비용을 밀도는 현 상황에서 이들은 사소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글, 14.6兆 톤큰 투자 美 전역에 새 거점 확충

구글이 미국 내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13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올해 13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들여 미국 곳곳에 사무실과 데이터센터를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차이 CEO는 “이번 새로운 투자로 수만 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며 “네브래스카, 네바다, 오하이오, 텍사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1만 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구글의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피차이 CEO는 또 “구글은 시카고와 워싱턴에서 입지를 계속 넓힐 예정이며, 버지니아와 조지아의 인력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작년에만 미국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9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구글의 이런 톤 큰 투자를 두고 “구글이 실리콘밸리 밖에서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특정 지역을 넘어 미국 전역에 회사 거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최근 몇 년에 걸쳐 계속돼 왔다.

구글만의 일도 아니었다. 애플, 아마존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영역을 확장해왔다. 지난해 아마존은 뉴욕과 워싱턴 근처에 ‘제2의 본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IT 공룡들의 ‘영토 확장’ 전략에 대해 “변화하고 있는 정치 현실과 기술 추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IT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미디어, 광고, 하드웨어로 확장하면서 오스틴 뉴욕과 같은 새로운 허브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은 물론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피차이 CEO는 “데이터센터 설립은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유튜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앞으로 여러 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새로 열고 또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아마존을 치켜세웠다. 김영정 기자 0jung2@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들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움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행복
그것이 롯데백화점이 생각하는 ‘롯데다움’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Lovely Life



카드업계 2위 도약 발판... 하나금융 ‘M&A 딜레마’

롯데카드 인수 리스크 산적

하나금융지주가 롯데카드 인수 딜레마에 빠졌다. 업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매물이지만 인력 구조조정, 내부 반발 등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든 하나금융이 인수합병(M&A)에 앞서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인력 부담을 떠안기 힘들어 하나카드 수준으로 인력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정도 재무적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매각가에 명예퇴직 비용 2000억 원가량을 더 얹어서라도 사전 구조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롯데 구조조정 칼바람 가능성

하나 752명·롯데 1732명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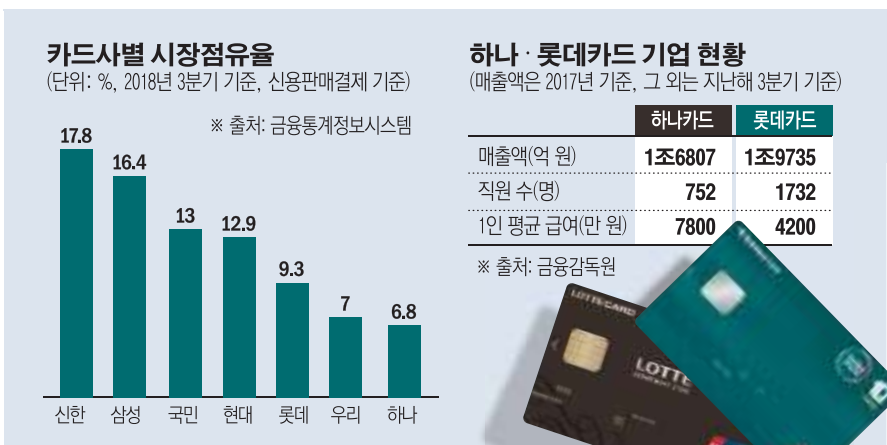
2000억 들여 사전 인력 감축 검토

인수·합병 이후 조직융합 관건

외환銀 통합도 4년 만에 안정화

임금·인사제 등 내부 갈등 우려

지난달 30일 진행된 롯데카드 매각 예비입찰에 1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금융과 한화그룹 등 2곳만 주요 전략적 투자자(SI)로 응찰했다. 카드 업황 악화, 높은 매각가 등 위험이 크지만 하나카드가 업계 중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롯데카드가 꼭 필요한 파트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신용판매(개인·법인·체크카드) 시장점



유율은 롯데카드 9.3%, 하나카드 6.8%다. 둘이 합치면 16.1%로 업계 2위인 삼성카드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M&A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이 금융 계열사의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고용보장을 중요 조건으로 내

걸었지만, 업황 악화로 카드업계가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덩치가 큰 롯데카드를 그대로 떠안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하나카드의 총직원원은 752명으로 롯데카드(1732명)의 43% 수준이다.

시너지도 관건이다. 하나카드는 2014년

말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과의 통합 이후 경영실적이 악화되며 성장통을 겪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통합 후 4년째 들어서 조직이 안정화됐는데 롯데까지 합쳐지면 그 과정을 또 겪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임금 차이도 커 인사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평균 연봉은 각각 7800만 원, 4200만 원이다.

한편 롯데카드는 조만간 적정인수후보군(쇼트리스트)을 추린 뒤 본입찰을 진행해 인수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는 롯데그룹은 10월까지 금융 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매각 희망가는 1조5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농협금융, 출범 첫 1兆 클럽 가입

당기순익 42% 증가한 1.2兆

농협금융지주가 출범 후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김광수(사진) 회장은 취임 첫째 농협금융의 역사를 새로 쓰며 경영능력을 입증했다.

14일 농협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2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8% 늘었다고 밝혔다. 지주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이다.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의 지난해 누적 신용손실 총당금은 7355억 원으로 전년(9439억 원) 대비 22.1% 감소했다.

영업도 잘했다. 지난해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9.9%, 4.5% 늘어난 7조9104억 원, 1조789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실적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농업지원사업비와 1000억 원 이상의 사회공헌비를 제외하고 거둔 성과다. 농업지원사업

비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 분기 농협중앙회에 내는 분담금을 말한다.

농협금융은 올해도 ‘1조 클럽’ 타이틀 수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순이익 목표는 1조5000억 원이다. 농협은행은 1조2000억 원이다.

김 회장은 “2019년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해질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M&A 실탄’ 마련 속도 내는 지주사들

신한, 추가 인수 대비 CPS 발행

KB, 이중레버리지 비율 관리 나서

우리, BIS비율 권고치 준수 총력

인수·합병(M&A) 전진터에 뛰어든 금융지주사들이 ‘실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금융 업계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7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CPS) 발행을 결의했다. 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오렌지라이프 잔여지분(40.85%) 인수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추가 M&A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캐피탈 인수전에 뛰어든 KB금융은

금융지주 이중레버리지 비율

(지난해 9월 말 기준)

회사명	이중레버리지비율	회사명	이중레버리지비율
KB	125.6	NH	120.4
하나	124.2	신한	117.8
JB	122.7	DGB	106.4
BNK	121.1		

※ 출처: 금융감독원
※ 이중레버리지 비율= 자회사 총자산/자본, 금융당국 권고 수준은 130%

업종 내 가장 탄탄한 자본력을 갖고 있지만, 이중레버리지비율이 고민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KB금융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125.6%까지 치솟으며 금융당국 권고치(130%)에 근접했다. 은행계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다. 분모인 자기자본을 늘리려면 자회사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거나, 채권·유상증자 등에 나서야 한다.

M&A 시장의 잠재적 포식자로 불리는 우리금융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가능성

이 나오고 있다. 지주사 전환으로 8조 원의 출자 여력이 생겼지만, 앞으로 1년간 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표준등급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등급법보다 엄격한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현재 15.9%에서 11%대로 떨어진다. 금융당국의 BIS비율 권고치는 13%다. 떨어진 비율만큼 돈을 더 쌓아야 한다. 손태승 회장이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부터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이 자본규제를 준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타 금융지주들보다 BIS비율이 낮다는 게 부담”이라며 “은행을 포함한 사회사의 배당 압력이 커지거나 우리금융지주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dou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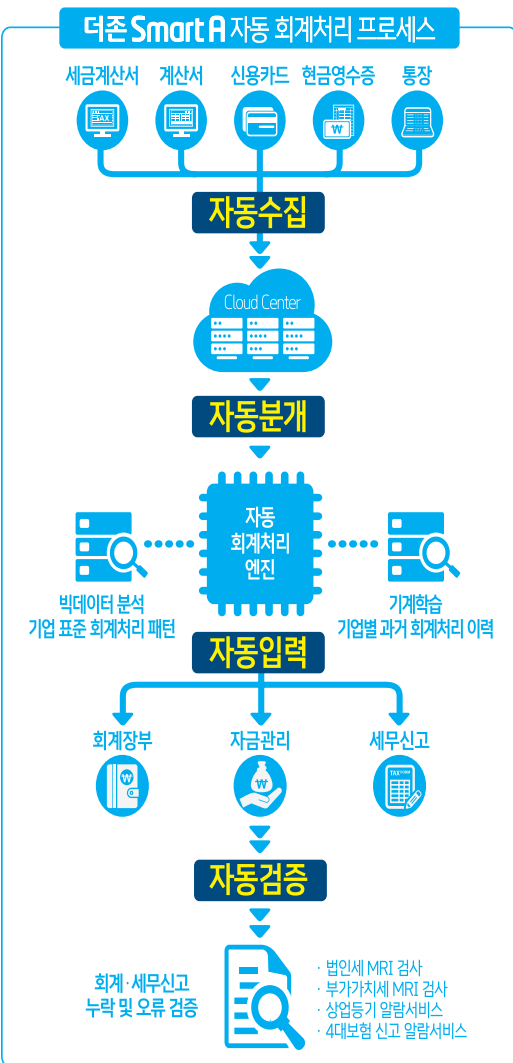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구광모 회장 “예비 박사 모십니다”…대 잇는 인재경영

2019 첫 대외 행보로 ‘LG 테크 콘퍼런스’

캐주얼 차림으로 참석, 350명 자리 돌며 비전 설명
“여러분의 꿈 지원…대표 취임 후 R&D 가장 공들여”

LG그룹의 인재경영이 대를 이어 실천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첫 대외 행보로 연구개발(R&D) 미래 인재 찾기를 택했다.

구 회장은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R&D 인재 3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곳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LG의 R&D 공간에서 최고 인재들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G가 고객의 삶을 바꾸는 감동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더해 주시기 바란다”며 젊은 인재들이 LG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2012년 시작된 ‘LG 테크 콘퍼런스’는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해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LG의 기술혁신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초청 인재들이 혁신 연구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종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LG사이언스파크로 옮겼

다. 초청 인재와 LG 임직원 모두 캐주얼 차림으로 참여해 격식은 배제하고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번 LG 테크 콘퍼런스에는 인공지능, 올레드, 신소재 재료, 자동차부품, 배터리,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분야의 석·박사 과정 R&D 인재들이 참여했다.

구 회장은 이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작년 하반기 LG 대표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사이언스파크이고, 사무실을 벗어나서 가장 자주방문한 곳도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R&D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싶은 LG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믿음과 최고 R&D 인재 육성 및 연구 환경 조성 의지를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큰 의미를 부었다.

구 회장은 40여 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미래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대학생들과는 전공 분야



구광모(앞줄 왼쪽 세 번째) LG 회장이 13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등에 대해 심심타회한 대화도 나왔다.

구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꾸준히 연구개발 중요성과 인재 지원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내비쳤다.

작년 9월 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공식 자리에서도 그는 “최고 인재들이 최고 연구개발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인재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구본무 회장은 2017년 2월 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여러분처럼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싶다. 서

울 마곡에 들어설 첨단 융복합 연구단지에서 한껏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평소 “국적이나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사업에 필요한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방침도 자주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佛 2019 최고 브랜드 선정

삼성전자가 프랑스 소비자들로부터 올해의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광고컨설팅 업체인 서비스플랜과 독일 시장조사업체 GfK가 공동 발표한 ‘2019년 프랑스 최고 브랜드’에서 삼성전자는 4개 평가 항목 가운데 3개 부문에서 1~2위에 올랐다.

‘제품 브랜드’ 항목에서는 프랑스 생수 브랜드인 크리스탈린과 독일 가전·부품 브랜드 보쉬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주 최 측은 삼성전자가 소비자 신뢰, 혁신, 제품 독창성 부문 등에서 탁월한 점수를 획

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기업 브랜드’ 항목에서는 미국 아마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50대 이상 소비자의 평가를 토대로 선정한 ‘골드에이지 브랜드’에서도 삼성전자는 오디오 브랜드 보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명단에서 3개 부문 ‘톱10’에 동시에 오른 브랜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자국의 타이어업체 미슐랭(미쉐린)밖에 없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모두 순위에서 미슐랭에 앞서 사실상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가족에 사과

(취한화가 14일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2분께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0여 대를 동원, 9시 27분께 진화 작업을 끝냈다. 옥경석(가운데)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 대전공장 정문에서 허리 숙여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올 16만 대 판매 목표

글로벌 시장의 SUV 인기에 힘입은 쌍용자동차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생산 및 판매에 도전한다.

쌍용차는 1세대 렉스턴 출시에 힘입어 2002년 16만481대(내수 14만8166대, 수출 1만231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17년 만에 16만 대 역사를 다시 쓴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품질 및 제조경쟁력 의지를 다짐하고 생산본부 산하 임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 ‘2019년 생산본부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경기도 안성에 자리한 쌍용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최종식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생산본부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판매목표치를 2002년 이후 최대치인 16만 대로 설정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진에 ‘5라운드’ 예고한 KCGI

쇄신안에 감사 선임 등 빠져
다음 주 요구사항 또 밝힐 듯
국민연금도 시큰둥한 반응

사모펀드(PEF) KCGI와 국민연금의 경영권 압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한진그룹이 발표한 ‘그룹 비전 2023’에 대해 국민연금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KCGI는 ‘제5라운드’를 예고했다.

14일 한진그룹이 전날 발표한 비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제주도 파라다이스 호텔 수익성 제고 등 앞서 KCGI가 한진 측에 제안했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됐다.

앞서 KCGI는 지난달 21일 ‘신뢰 회복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송현동 부지와 제주도 파라다이스호텔 등 유류자산 매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요구

한 바 있다.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거래 시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거래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방안 역시 KCGI의 요구방향과 일맥상 통한다.

다만 비전 2023에는 KCGI가 요구했던 ‘지배구조위원회 설치’가 빠져 있다. 지난달 31일 KCGI가 주주제안서를 통해 추천한 감사(김철규 회계사) 선임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주)한진에 각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지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 의결권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KCGI는 한진 측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5번째 공식 서신이다. KCGI는 올해 들어서만 △신뢰 회복 5개년 계획 △주주제안 안건 상정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명부 열람 등 4차례에 걸쳐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이 발표한 비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 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하는지가 핵심”이라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본질적으로 어떤 점이 변경됐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위원회 설치 역시 자본금 변동에 따른 결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안경무 기자 noglasses@

아시아나도…지난해 영업이익 35% 뚝

국제 유가 상승에 발목
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

지난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3% 감소한 17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조8506억 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04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창사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년보다 3분의 1 가량 줄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유류비로 지출한 비용은 전년 대비 4327억 원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핵심자산을 매각해 차입금 1조900억 원을 상환하며 시장의 유동성 우려를 해소했고 자회사 아시아나HDT와 에어부산 상장을 통해 2000억 원가량의 자본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은 2017년 말보다 83%포인트 떨어진 504.9%를 기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아시아나항공 매출 상승에 힘입어 몸집이 다소 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난 9조7835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2814억 원, 당기순이익은 1301억 원을 달성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목표치를 매출 10조2500억 원, 영업이익 5100억 원으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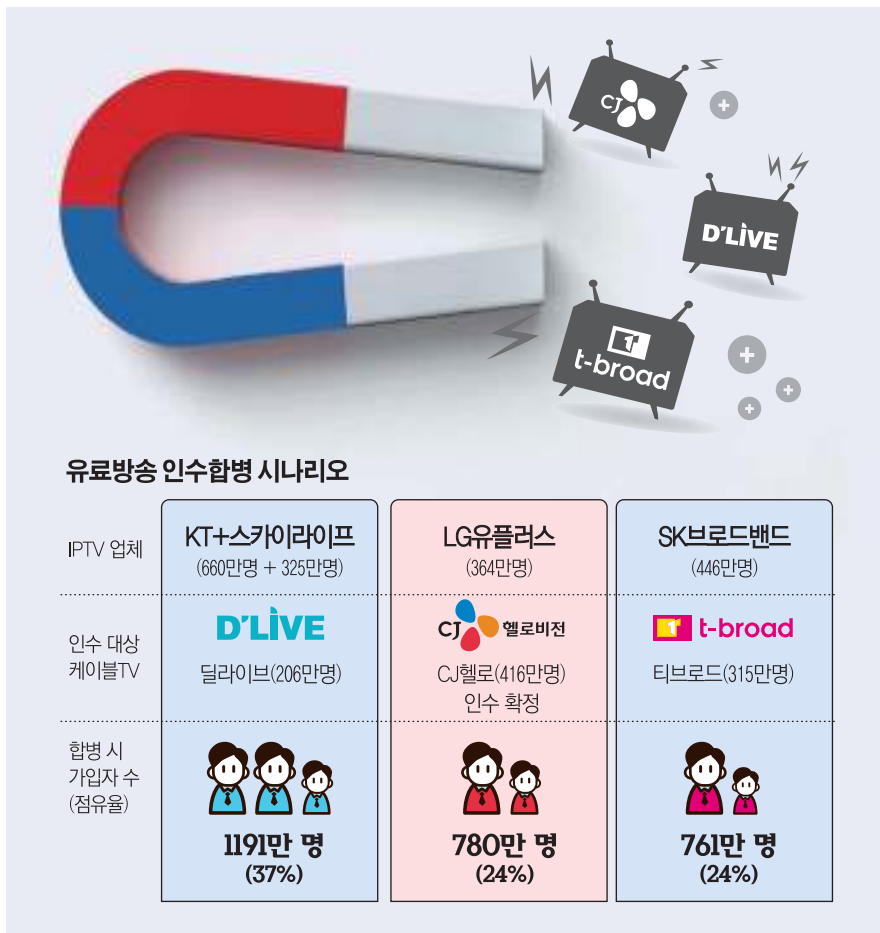
하유미 기자 jscs508@

SK이노, 팀장 직책 없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주문에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애자일(Agile) 조직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애자일 조직이란 민첩한, 기민한 조직이라는 뜻이다.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cell)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를 일컫는다.

1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팀 조직의 경계를 없애고, 업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팀장’ 직책이 없어졌다. PL(Professional Leader)이 단위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SK그룹은 지정 좌석과 칸막이를 없애는 ‘공유 좌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옥 SK서린 빌딩을 19년 만에 리모델링 중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LG U⁺ 이어... KT·SKB도 '케이블 TV 인수' 시간문제



유료방송 점유율 지각변동
이통3사 콘텐츠 사업 공들여
케이블TV도 매각 적기 인식

문제는 '점유율 33% 제한 규정'
규제 도입 시 KT 인수전 무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확정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위에서 3위로 밀린 SK브로드밴드나 턱 밑까지 쫓긴 KT 모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케이블TV 인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각각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이다.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9.86%)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23.83%까지 올라가 LG유플러스와 비슷해진다. KT가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총 점유율이 37.31%까지 늘어나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다.

현재 이통 3사와 케이블TV 모두 인수합

병에 대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추가 인수합병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통 3사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OTT)에 시청자를 빼앗기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몸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인수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KT의 M&A 시장 합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합산 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현재 재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재도입이 확실시되면 KT의 케이블TV 인수는 물 건너간다. 30.86%의 점유율인 KT와 스카이라이프 연합군이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33%를 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를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자유한

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2차 회의 격인 25일 회의에서 과방위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KT가 위성방송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팔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KT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공세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과방위도 선뜻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KT 측과 딜라이브 등 케이블 TV 업체들은 합산 규제 재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발상인 데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독점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최첨단 가전 3월 '출투' 예고

상반기 주요 전자제품 출시 현황

	삼성전자	LG전자	발뮤다
스마트폰	갤럭시S10 출시 : 3월 8일 전망 (폴더블폰 이르면 3월)	LG G8 씽큐 출시 : 3월	
TV	2019년형 QLED TV 출시 : 3월	2019년형 OLED TV 출시 : 3월	
에어컨	2019년형 삼성 무풍 에어컨 출시 : 1월 24일	2019년 LG 휘센 씽큐 에어컨 출시 : 1월 17일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67㎡ 출시 : 2월 1일		발뮤다 더 퓨어 출시 : 2월 13일

폴더블폰 등 스마트폰 혁신 CES 선보인 TV 출시 예정

가전업체들이 봄철 신제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은 2월에 공개된 후 3월에 본격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TV 또한 비슷한 시기에 판매될 전망이다. 공기청정기, 에어컨은 이미 여러 업체들이 출시, 판매를 시작해 봄철 황사가 되면 판매전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10'이 3월 8일 출시될 전망이다. 삼성 폴더블폰도 이르면 3월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갤럭시S10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기능이 대거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갤럭시S10 일부 모델에는 물이나 흙이 묻어도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퀄컴의 초음파 기반 지문 인식 센서가 전면 디스플레이에 내장될 전망이다. 삼성 폴더블폰은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폴딩 방식은 제품 외부에 디스플레이를 별도로 더 붙여야 되는 까다로운 기술이다.

LG전자의 전작 스마트폰 'G8 씽큐' 또한 비슷한 시기인 3월에 판매될 예정이다. 25일부터 열리는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9에서 먼저 공개되는 G8 씽큐는 CSO(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를 탑재해 별도 스피커 없이 화면에서 직접 소리를 낸다.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다른 전자제품들도 올해 봄에 공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에서 2019년형 QLED TV 전 라인업을 3월부터 본격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 TV는 AI(인공지능) 화질 엔진 퀀텀 프로세서를 적용해 원본 화질에 관계없이 장면별로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해 준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9에서 전시된 LG전자의 2019년형 OLED TV도 3월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청정기 시장 탈환전도 가열되고 있다. 연초부터 신제품이 등장했다. 삼성전자가 1월에 공개한 '삼성 큐브' 67㎡(제곱미터) 신제품은 기존의 47㎡ 제품과 결합해 114㎡의 용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 맞는 청정이 가능하다. 일본 가전업체 발뮤다가 12일 선보인 공기청정기 '발뮤다 더 퓨어'는 트루헤파 필터 탑재로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를 99.97%까지 잡아낸다.

2019년형 에어컨을 공개한 주요 업체들은 조기 판매에 안간심을 쓰고 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물량 부족, 설치 시기 조율 등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의 '2019년형 무풍 에어컨'은 냉방 기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날씨·증권과 같은 생활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가 선보인 2019년 'LG 휘센 씽큐 에어컨'은 고객이 묻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운전 모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교감형 인공지능을 탑재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마지막 치과치료 언제였나요?

잇몸을 지키는 Daily Care, **검가드**

액상 타입으로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강력하게!
잇몸 질환 원인균 99.9% 제거

검가드,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피곤할 때마다 잇몸이 쉽게 붓는다
- 양치질 등 작은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
- 평소보다 입 냄새가 심하게 난다
-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치은지수(GI)개선 효과 정도(6주 사용)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6주 임상]

■ 잇몸 질환 원인균 진지발리스균 99.9% 살균효과 (시험기관: 노르젠(株))
■ TPA 성분으로 잇몸 혈액순환 촉진 ■ 판데놀 성분으로 잇몸을 탄탄하게

잇몸가그린 검가드

하나금융그룹

환전, 지갑이 대세다!

KEB하나은행 환전지갑

내 맘대로 사고팔고,
지갑처럼 보관하고,
똑똑한 환율 알림까지!
해외여행이 더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역시 남다른 환전서비스,
KEB하나은행입니다

터치 세 번이면 환전 끝! 환전지갑

- STEP 1 : 통화/금액을 선택 후 터치!
- STEP 2 : 환전신청 터치!
- STEP 3 : 결제수단 선택 후 터치!

100% 환율 (spread) 우대 효과 이벤트

- 기 간 : 2019.03.31 까지
- 내 용 : 환율우대 + 하나머니 적립 혜택 제공
- 대상통화 : USD, JPY, EUR



지금 바로
하나멤버스
APP에서
이용하세요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 1인 1회에 한하여 혜택 제공 (환전금액 원화기준 1백만원 이내)
* 하나머니 적립 시점에 하나멤버스 회원에 한해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탈퇴회원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멤버스 APP을 참고하시거나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847 또는 1599-1111(0, 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1485호(2019.02.13) / CC브랜드 190213-0047

외환전문은행

커지는 화웨이 보안 리스크… LG U+ ‘전전긍긍’

국내 이동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로 5G망 구축
하현희 부회장 “보안검증 자리 만들겠다” 약속에도
美 정부 거센 압박… 국내서도 불매운동 확산 우려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면서 국내 이동통신사에 불뚝이 튀었다. 국내 이동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5G 망으로 구축한 LG유플러스로서는 기존에 설치한 망을 회수할 수도, 합부로 증설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 보안 문제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화웨이를 5G망으로 채택한 LG유플러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헝가리에서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같이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그런 곳들과 협력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 장비를 쓸 때 찾아오는 기회와 위협을 확실히 인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헝가리 통신시장은 화웨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화웨이가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폴란드 등 동유럽에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가 동유럽 국가들을 발판 삼아 유럽연합(EU) 내의 정보를 중국에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5G망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화웨이 불매에 동참하라는 공식 입장이 전달될 경우 화웨이 장비를 상당 부분 사용 중인 한국도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동사 중 유일하게 5G 장비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LG유플러스가 문제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2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해 설치한 5G 기지국

중 대다수가 화웨이 장비다. 기존 LTE(4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했다.

국내 LTE 기지국 가운데 화웨이 장비 비중은 12~15%로 추산된다. 당시 미국이 반발하지 않도록 수도권 미군 주요 시설 주변 기지국에는 화웨이가 아닌 삼성전자나 노키아 장비를 사용했다. 화웨이 장비의 국제 보안 인증을 따로 받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장비는 통신업체들이 직접 선정하는 것”이라며 “국내 일부 통신 업체가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아직 우리에게 우려를 전해온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화웨이 보안 이슈는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달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G유플러스 불매운동 동참

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안 문제에 대해 줄곧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정보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이뤄진 유선 코어망에서 관리되고, 이를 LG유플러스에서 직접 관리·유지보수 한다는 것이다.

보안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하현희 부회장까지 직접 나섰다. 하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현재 화웨이는 스페인 국제 CC인증기관에 국제인증을 신청한 상태”라며 “기지국 CC 코드와 관련 기술 자료를 넘겨 본격적으로 장비 보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또 “올해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제 검증기관, LG유플러스, 국내 전문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 문제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범근 기자 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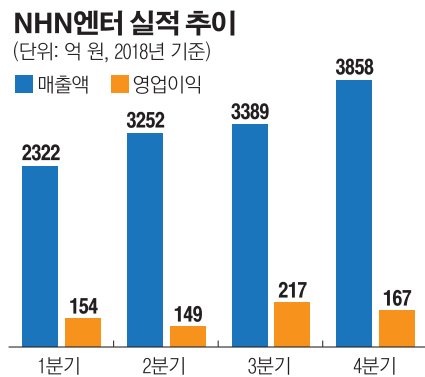
NHN엔터, 분할 후 첫 ‘1조 클럽’

지난해 매출액 1조2821억
영업익, 98% 늘어난 687억
“광고·결제사업 수익성 강화”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2821억 원을 기록해 2013년 분할 이후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7.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6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58억 원으로 62.3%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게임 부문 매출의 경우 일본의 ‘요괴워치 푸니푸니’와 ‘컴파스’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컬래버 업데이트가 더해져 115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PC온라인 게임의 비중은 각각 67%,



33%로 모바일 게임 전문사로 체질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비게임 매출은 2707억 원을 달성했다. 이 중 페이코와 NHN한국사이버결제, 인크로스 등 주요 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결제와 광고 사업 매출이 1449억 원으로 집계됐고, 에이컴메이트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반영된 커머스 매출은 515억 원을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 매출은 벅스의 실적 개선과 신규 계열사인 여행박사 및 위즈덤

하우스의 연결 편입효과로 468억 원, 기술 사업은 2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NHN엔터는 신사업의 핵심인 페이코를 기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넘어 ‘간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보다 세밀하게 타깃팅된 대출 서비스를 포함해 페이코 포인트를 활용한 해외결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우진 NHN엔터 대표는 “기해년 새해에는 닌텐도, 라인과 협력해 제작 중인 ‘닥터 마리오 월드’와 코미코의 인기 웹툰 IP를 활용한 ‘미이라사육법’을 필두로 글로벌 IP에 기반한 다양한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게임 환경과 금융 플랫폼 서비스 변화에 NHN만의 장점을 살려,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N엔터테인먼트는 내달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NHN’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넥슨은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트라하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넥슨

넥슨 “신작 트라하, 4월 정식 출시”

하이퀄리티 그래픽·차별화 콘텐츠… “제대로 된 MMORPG”

넥슨이 올해 기대작으로 꼽는 ‘트라하’가 4월 18일 정식으로 출시된다.

넥슨은 신작 MMORPG ‘트라하’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출시 일정과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는 트라하를 개발한 이찬 모아이게임즈 대표가 직접 무대에 올라 “IP의 한계를 벗어나 독창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MMORPG를 만들겠다”라고 비전을 밝혔다.

트라하는 4월 18일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며, 이달 14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트라하는 언리얼 엔진 4를 기반으로 PC 온라인 수준의 하이퀄리티 그래픽과 스케일에 최적화된 하이엔드 MMORPG를 지향한다. 모바일 환경의 한계에 타협하기보

단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 수준의 플레이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저가 직접 고민과 선택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MMORPG의 본질을 확보하고, 정해진 동선에 따라 퀘스트를 진행하는 원패스 방식을 탈피해 유저가 구성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트라하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도 소개됐다. 트라하는 필드 몬스터, 자연, 건물 등 모든 부분에서 사실적인 하이퀄리티 그래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사양 최적화에 집중했다. 또 전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클래스 전환이 가능한 ‘인피니티 클래스’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의 클래스가 한 번 더 확장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서버통합 경매장’ 등 메가 오픈월드 중심의 커뮤니티를 설계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카오, 매출 2조 돌파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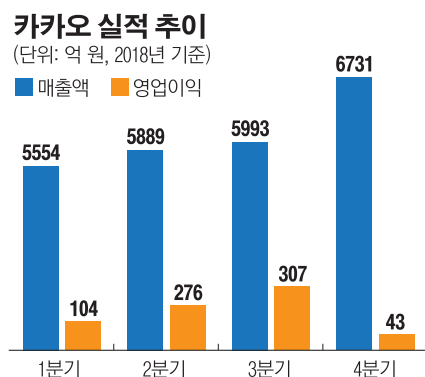
영업익은 60% 줄어 대조
신사업 마케팅비 증가 영향
“올해 글로벌 진출 본격화”

카카오가 광고 매출을 늘리고 신사업의 수익화가 더해 고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매출 2조4167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0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60% 줄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673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 87.7% 감소했다.

연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신사업을 위한 투자가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고 플랫폼 매출은 연말 성수기 효과와 플러스친구, 알림톡 등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 광고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1817억 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플랫폼 매출은 314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멜론의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1401억 원으로 집계됐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1003억 원, 기타 유료 콘텐츠 매출은 73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4분기에는 각종 서비스의 매출 및 거래액 증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 증가, 연말 상여금 지급, 신사업 확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영향으로 6688억 원의 영업비용

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신사업을 위한 인력 충원, 시스템 개발 등 비용투자가 지난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에서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올해 2분기에 오픈한다. 여 대표는 “카카오톡 내에서 유저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고 AI를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노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며 “실험이 완료되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마치면 2분기에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에는 게임, 영상, 웹툰 등 콘텐츠를 필두로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카카오M은 확보한 한류 스타 배우군과 작가, 감독 등과 함께 드라마를 비롯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코웨이, 지난해 매출 2조7073억… 7.6% ↑

영업익 10% 늘어난 5198억

코웨이가 지난해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거뒀다.

14일 코웨이는 작년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073억 원, 영업이익 5198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6%, 10.0% 늘어난 규모다.

2018년 4분기 매출액은 7117억 원, 영업이익은 128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9%, 20.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매출액은 분기 최초로 70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다.

코웨이는 연간 국내 및 해외 렌탈 판매 부문에서 전년 대비 13.1% 늘어난 191만대의 렌탈 판매량을 기록, 역대 최대 연간 렌탈 판매량을 달성했다. 해외 렌탈 판매는 전년 대비 50.5% 증가한 45.5만 대를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코웨이는 올해 목표로 매출액은 10.0% 증가한 2조 9780억 원, 영업이익은 6.0% 증가한 5510억 원을 제시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편의점 ‘내실 甲’ GS25…“매장 적지만 매출은 선두”

매장 수는 CU가 업계 1위
매출·영업익은 GS25 선두
빅히트 친 ‘딸기 샌드위치’ 등
간편식 트렌드 리더 효과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GS25가 매장 수 대비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U(씨유)의 점포 수는 666개 증가해 1만3169개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GS25로 지난해 678개가 늘어 1만3107개로 집계됐다. 시장 점유율은 CU(씨유)와 GS25가 각각 31%, 30%다.

하지만 실적은 점유율과 비례하지 않았다. 점포 수에서 밀리는 GS25가 CU(씨유)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GS25의 작년 매출은 6조5510억 원으로



CU를 보유하고 있는 BGF리테일 전체 연간매출 5조7758억 원에 비해 7752억 원 높다. 영업이익 역시 GS25가 높다. 작년 GS25의 영업이익은 1921억 원으로 BGF리테일(1895억 원)보다 26억 원가량 많다.

GS25는 지난해 편의점 업계 최고 수준인 1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상생지원금을 가맹점을 위해 집행했다. CU(씨유)

는 GS25보다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GS25는 높은 상생지원금을 지불했음에도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셈이다.

한화투자증권은 GS25에 대해 “상생지원금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GS25가 처음으로 매장 수 1위였던 CU(씨유)를 연간 매출액에서 따돌린 이후 줄곧 격차를 벌렸다. GS25는 CU(씨유)에 비해 2016년 매출은 6614억 원, 2017년에는 6258억 원 앞섰다.

가맹점당 매출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2017년)

도 GS25는 단연 1위다. 가맹점 평균 매출은 GS25가 6억5079억 원, CU(씨유)가 6억308억 원이다.

GS25가 경쟁사에 비해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배경은 간편식 시장을 일찌감치 특화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슈 물이를 하고 있는 ‘딸기 샌드위치’와 ‘인기가요 샌드위치’의 경우 GS25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이다. 편의점 도시락 열풍을 이끌었던 ‘김혜자 도시락’을 GS25가 출시한 이후 도시락 스타마케팅에 불이 붙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GS25의 컵라면 대비 도시락 매출 비중은 52.5%로 2014년 35.7%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른 집객 효과 역시 특특히 누리고 있다.

GS25 관계자는 “기본적인 전략 자체가 외형 성장보다는 개별 점포의 수익을 우선하고 있다”면서 “높은 MD 경쟁력으로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특명 2030 잡아라” 모바일 힘주는 홈쇼핑

온라인 모바일 쇼핑 거래액 ↑
신세계TV쇼핑은 전용 스튜디오
CJ오쇼핑·GS샵 프로그램 신설

TV홈쇼핑이 모바일 사업 강화로 제2의 전성기를 노린다.

40~60대가 주 고객층이던 TV홈쇼핑이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 모바일 생방송을 확대하고, 전용 스튜디오를 개설하는 등 모바일 사업 투자에 나섰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조729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6조73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이처럼 모바일 쇼핑 규모가 커지면서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신세계TV쇼핑의 모바일 매출은 지

난해 전년 대비 103% 성장했다. 전체 매출에서 모바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로 높아졌다. 올해 1월에는 30%까지 뛰어올랐다. GS샵 역시 2013년 8.6%에 불과했던 모바일 취급액 비중이 지난해 2분기 처음으로 TV홈쇼핑을 추월했다.

신세계TV쇼핑은 15일부터 모바일 커머스 촬영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를 선보인다. 천장에 LED 조명을 설치해 별도의 조명 담당 인력 없이 한 명이 단독으로 촬영하고, 촬영 후 바로 편집할 수 있도록 편집기를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라이브 방송 ‘쇼크라이브’ 등 모바일 전용 콘텐츠를 일찌감치 도입한 CJ오쇼핑은 지난달 CJmall의 모바일 프로그램인 ‘뿌쇼뿌쇼’를 새롭게 선보였다. ‘스트레스를 뿌(부)수는 점심쇼핑’이란 컨셉으로, 매주 월·목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를 즐기는 직장인 등 젊은 고객을 겨냥해

제작됐다.

GS샵 역시 지난해 12월 모바일에 적합한 ‘오늘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홈쇼핑 프로그램이 보통 1시간에 한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오늘의 선택은 방송 분량을 10분으로 대폭 축소했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짧은 방송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상품을 소개하고 주문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구매 결정이 빠른 모바일 쇼핑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4050세대를 겨냥하는 TV홈쇼핑은 TV채널 재평(인접 채널의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일시적 시청률 상승효과)을 통해 소비되는 것과 달리 모바일은 장소나 시간의 제한이 없다”며 “홈쇼핑 업체가 모바일 쇼핑을 확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2030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이마트 “냉동삼겹살 8800원”

이마트가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가격’ 4차 상품으로 초저가 냉동 삼겹살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수입산 냉동 삼겹살인 ‘880 대패 삼겹살’ 1kg을 8800원에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 상반기 내내 동일한 가격에 판매한다. 냉동 대패 삼겹살의 시중 가격은 1kg에 1만1000원~1만2000원 정도로 880 대패 삼겹살은 이에 비해 20%가량 저렴하다.

사진제공 이마트

신세계백 ‘시코르 카드’ 젊은층 타깃 적중

출시 4개월 만에 5만 명 회원

신세계백화점과 KEB하나카드가 손잡고 선보인 ‘시코르 카드’가 젊은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시코르 카드’가 출시된 달여 만에 신규 활동고객 5만여 명을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3만여 명이 30대 이하 2030고객으로 나타났다.

시코르 카드는 신세계백화점이 미래의 주요 잠재고객인 20~30대와 나아가 10대 고객까지 확보하기 위해 멤버십은 물론 다양한 혜택과 직접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출시한 업계 최초의 개별 브랜드 시중은행 카드다.

카드를 출시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시코르 카드의 연령별 신세계백화점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30대의 비중이 기존 백화점 제휴카드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시코르 카드의 20대 고객매출 비중은 31%, 이용건수 비중은 37%로 나타나 모두 연령별 1위를 차지했다. 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매출비중의 경우 20~30대를 합하면 전체의 60%에 달해 카드 소비의 주 고객층인 40~50대의 매출을 넘어섰다. 이용건수 비중으로 살펴봐도 20~30대는 71%까지 높아져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남주현 기자 jooh@



한국야쿠르트, 장케어 기능식품 MPRO3 출시

‘위-장-간’ 세 번째 프리미엄 제품 라인
국내 첫 이중제형 장 케어 특허 유산균

한국야쿠르트가 국내 최초로 이중 제형 ‘장(腸)’ 케어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선도기업 한국야쿠르트가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장케어 프로젝트 MPRO3(이하 MPRO3)’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간 건강 프로젝트 쿠파스’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 브랜드로 ‘위-장-간’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 제품은 4년여의 연구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캡슐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액상 형태의 ‘프리바이오틱스’를 한 병에 담았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 제품의 기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다.

‘MPRO3’는 한국야쿠르트의 유산균 3종을 혼합한



특히 유산균을 사용해 만들었다. 대한외과대사양학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해당 유산균을 섭취할 경우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유산균을 캡슐에 담아 안전성과 보존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이중 캡을 적용해 액상과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액상에는 대표적 프리바이오틱스인 ‘락투로스파우더’ 1000mg을 담았다. 락투로스파우더는 식약처가 인증한 개별인정형 소재로 유익균의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사과 3개 분량에 해당하는 식이섬유 9800mg과 올리고당 3850mg을 한국야쿠르트만의 기술력으로 배합해 기능성을 강화했다.

변경구 한국야쿠르트 마케팅 상무는 “‘MPRO3’는 100억 CFU를 보증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액상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이 삼아 활발하게 증식하는 획기적 제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하며 성장세에 있는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코스피, 기관 ‘사자’에 1%대 급등… 2220 재진입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커져
기관 2233억 매수 상승 전인
“반도체 강세” 코스닥도 올라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220선을 회복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0월 10일(2,228.61) 이후 처음으로 2220선을 넘어 녀 달여 만의 최고치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4.37포인트(1.11%) 오른 2225.85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홀로 2233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27억, 493억 원을 각각 매도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일정을 60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코스닥은 반도체 및 IT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는 옵션 만기일을 맞아 오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선물 매수가 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돼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2.81%)를 비롯해 SK하이닉스(1.57%), 삼성전자우(1.06%), LG화학(0.53%), 삼성

바이오로직스(0.66%), 네이버(2.00%), SK텔레콤(0.19%) 등 대부분이 상승했다. 반면 셀트리온(-0.94%), 현대차(-2.41%), 포스코(-0.19%) 등은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4.09%), 전기전자(2.32%), 섬유유통(2.29%), 음식료업(1.72%), 보험(1.43%), 금융업(1.18%), 증권(1.13%), 화학(0.80%) 등이 올랐다. 기계(-1.68%), 운수장비(-0.70%), 종이목재(-0.57%), 건설업(-0.41%)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32%) 오른 742.2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0월 22일의 744.15 이후 최고치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1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7포인트(1.11%) 오른 2225.85에 거래를 마쳤다.

재무부담 가중에도 베트남 1.4兆 과감한 투자

상장사 재무 분석

효성화학

화학 공장 프로젝트 추진 위해
1조2000억 외부차입 통해 마련
작년 9월 기준 부채비율 346%
차입금 의존도 58%로 높은 수준

효성화학이 베트남 화학 공장 프로젝트에 약 1조4000억 원(12억8600만 달러)을 투입한다. 최근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해 온 효성화학은 재무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 및 원가율 축소를 위해 베트남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이다.

◇동남아 시장 확대 위한 과감한 투자= 효성화학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 화학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판 탈수소 공장(PDH), 폴리

프로필렌(PP) 생산 공장, LPG저장소(Cavem), LPG 및 석유화학제품 부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신규 공장은 베트남 바리아 붕파우성 락탄현 까이뎐 공단에 위치한다.

베트남 투자 이유는 원료인 LPG부터 PP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 시장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 중국,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총 60만 톤의 PP 설비 가운데 30만 톤은 2019년 말 완공된다. 해당 설비는 2020년 초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전체 설비가 가동되는 2021년은 나머지 30만 톤을 가동한다. 완전 가동 시 예상되는 해당 설비 매출 규모는 연간 약 1조1000억 원(약 10억 달러, 2021년 판매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으로 추정된다.

효성화학이 PP에 감점이 있어 관련 시장 확대를 우선순위로 두는 모습이다. 실제 효성화학의 포트폴리오에는 PP, TPA(테레프탈산), 필름(PET필름, 나일론필름, TAC필름), NF3(삼불화

질소) 등이며, 전체 매출의 약 60%가 PP에서 발생한다.

◇외부 차입으로 1조2000억 투자금 조달= 베트남 화학공장 프로젝트는 총 투자 금액 중 약 1조2000억 원을 외부 차입을 통해 마련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효성화학의 2018년 9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346.1%, 58.8%로 재무부담이 높은 편이다. 업계에선 효성화학의 차입금 부담을 과중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그나마 높은 부채비율을 상쇄하는 지표는 ‘총차입금/EBITDA’와 낮은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다. 효성의 ‘총차입금/EBITDA’는 약 3배이며, 이는 현금창출능력 대비 차입금 규모를 뜻한다. 배수가 낮을수록 부채 대응 능력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효성의 단기상환부담(단기성 차입금 비중 34%)이 높지 않고, 보유 자산가치(담보제공 유형자산 채권최고액 5350억 원), 상장사로서의 자본시장 접근성 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종민 기자 kjm@

김상철, 금투업계 진출 언제쯤

〈한글과컴퓨터 회장〉

파인아시아운용 지분 구조 복잡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론 안나

대표 자리 반년 넘게 공백 상태로

김상철〈사진〉한글과컴퓨터 회장의 금융투자업계 진출 도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소형 자산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지분구조가 워낙 복잡한 데다 지분 취득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던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이 나지 못했다. 증선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지분구조 등 전반적인 사안을 추가로 살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격주로 진행되는 만큼 파인아시아운용의 대주주 적격성은 이르면 다음 달에나 다시 증선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4월 유상증자를 통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직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해당 심사는 일반적인 처리기한(2개월)을 훌쩍 넘겨 아직 결론이 나지 못했다. 복잡한 주주구조와 함께 한컴과 일부 외국인 주주와의 갈등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철 회장이 과거 무리하게 지분 인수를 추진했고, 서둘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를 신청한 이후 금감원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계속 추가로 제출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해를 넘겨 결론이 나지 못하면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이사 자리는 반 년 넘게 공백인 상태로 직무대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등기이사 명단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김상철 회장이 파인아시아운용 대주주 적격성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안업체인 소프트웨어 회장 시절 김 회장은 한글과컴퓨터 인수 직전 소프트웨어를 통해 파인아시아운용(구 피닉스운용) 지분을 인수, 대주주 적격성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좌초됐다. 김 회장은 평소 벤처투자를 비롯한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결론이 나야 대표이사 선임 문제나 지분구조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면 외국인 주주가 그대로 지분율을 유지할지, 엑시트할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두산건설 ‘유증’ 추진… 계열사 주가 줄줄이 급락

“채권 회수 불확실성에 손상차손

4000억 유상증자 검토 중” 밝혀

두산重 9.8%·두산 7.46% 하락

두산건설이 연초부터 두산그룹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한창이던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터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전날 기타채권 회수 불확실성에 따른 손상차손을 공시했다. 손상차손액은 총 339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12%에 달한다. 이와 함께 4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두산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은 199.8% 악화된 5517억7989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산건설 지분 73.38%를 보유해 유증 참여가 유력한 두산중공업에 비롯해 두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이날 일제히 떨어졌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86% 하락한 9420원에 거래를 마쳤고, 두산(-7.46%)

두산건설 실적(잠정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2017년	2018년
매출	15359	15478
영업익	589	-522
당기순이익	-1840	-5518

※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

과 두산인프라코어(-5.32%), 두산바닥(-2.97%)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해는 두산 계열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으로 바빴던 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1월 두산바닥 주식 430만 주를 처분했다. 처분금액은 1419억 원으로, 재무건전성 강화가 목적이었다.

3월엔 두산중공업이 두산엔진 지분 42.6%를 사모펀드에 매각, 822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8월엔 3600억 원 규모의 두산바닥 지분 전량을 블록딜을 통해 처분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임직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재무 개선에 힘을 쏟았다.

지분 처분의 대상이 됐던 두산바닥 역시 유럽지역을 기반으로 재무 개선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자회사 두산 인터내셔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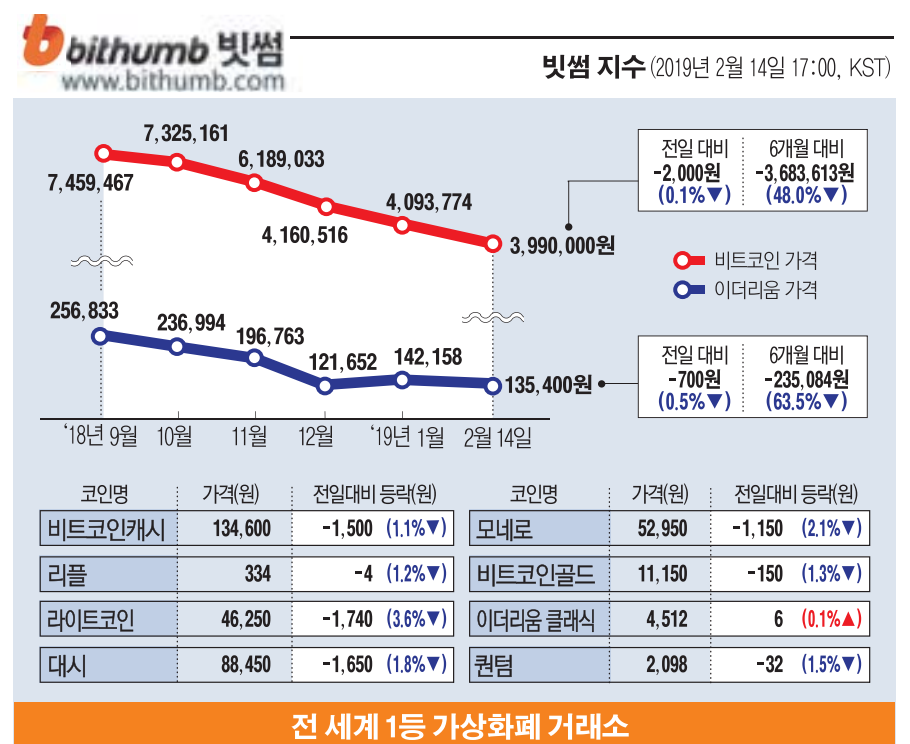
이탈리아를 처분한 데 이어 한 달 뒤엔 두산 테크노 홀딩을 정리했다.

이에 반해 두산건설은 2017년 이후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2017년 5월과 9월 각각 경기도 성남시 토지·건물과 강동구의 부동산 등을 처분한 두산건설은 두산큐백스의 지분 전량도 266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지난해엔 판매공급 계약은 꾸준히 이어갔지만 재무구조 작업과 관련해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한국기업평가는 차입 과부담 등을 이유로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두산건설의 회사채 등급은 BB+에서 BB로 떨어졌다.

특히 등급 하락 두 달 만인 이날, 다시 한 번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됐다고 발표하며 올해 재무 상태도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기평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과 이로 인한 재무 안정성 저하, 향후 수익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 필요성을 반영했다”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오너 개인회사, 60명 직원으로 1兆 매출... ‘통행세’ 논란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대한유화그룹

국내 대표 중견 화학기업 대한유화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오너 소유 개인 회사와의 거래를 늘리고 있다. 재계가 내부 일감 해소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다. 오너 일가는 안정된 제품 매입과 판매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배당도 쓸쓸히 챙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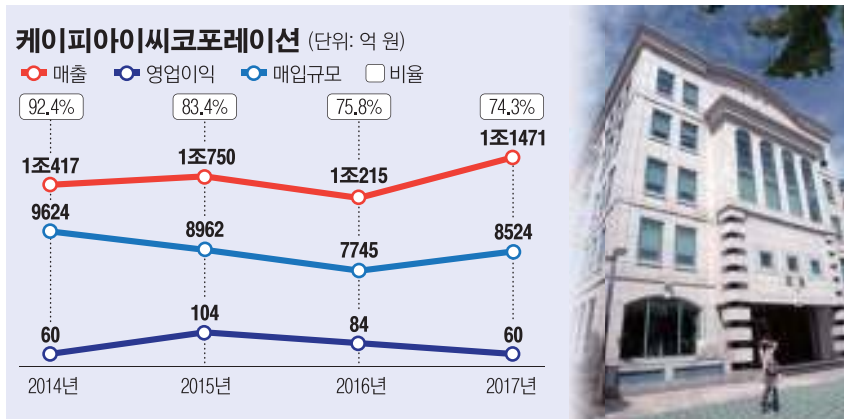
대한유화그룹은 1970년 설립된 대한유화공업(현 대한유화)이 모태다. 2017년 기준 그룹 자산총계는 2조7925억 원으로, 4개의 국내 계열사가 있다. 그룹 주력사인 대한유화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및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을 생산한다.

현재 고 이정호 명예회장의 4남인 이

KPIC, 대한유화 생산제품 매입 별도 가공과정 없이 해외판매만 4년간 60억~100억대 영업이익

‘100% 지분’ 이순규 회장·부인 연간 배당금 총액 161억 달해

순규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 회장은 지주회사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하 KPIC)을 통해 대한유화 등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KPIC는 이 회장과 그의 부인 김미현 씨가 각각 93.35%, 6.65%씩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KPIC는 대한유화의 단일 최대주주(지분율 31.01%)다. 이 밖에 이 회장(2.55%)과 자녀 등 친인척도 대한유화 지분 9.18%를 갖고 있다. 즉 ‘이순규-KPIC-대한유화’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는 2013년 KPIC와 유니렘의 합병으로 완성됐다. KPIC 이전 대한유화의 지주사였던 유니렘은 2001년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20만 주를 증여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2006년에도 유니렘과 KPIC에 각각 64만 주, 30만 주씩 증여했다. 또 유니렘은 그해 74만여 주를 장외매수하며 최대 지분을 갖게 됐다. 이후 2010년 대한유화가 공개 매수 및 주식 소각으로 전체 주

식 수가 줄면서 지분율이 올라갔고 2013년 KPIC가 유니렘을 흡수했다.

대한유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정점에는 KPIC가 있다. KPIC의 사업구조는 대한유화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해 마루베니와 인터켄, 미쓰비시 등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전부다. 별도의 생산이나 가공 과정도 없어 KPIC의 임직원 수는 2017년 기준 60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 해 거두는 매출은 1조

원을 훌쩍 넘긴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출은 6000억~700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대한유화 실적 호조 흐름을 타고 이듬해부터 1조 원을 돌파했다. KPIC와 대한유화의 거래 규모는 2014년 962.4억 원에서 2017년 852.4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3분기 기준으로 이미 1조 원을 넘어서면서, KPIC는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정적 제품 매입과 판매로 최근 4년간 60억~1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배당 총액은 161억 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이 회장 부부의 수입이 됐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KPIC에 대해 “대한유화 내부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업무를 지배주주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회사로, 회사 기회유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자회사 성장에... 지어소프트 ‘방긋’

‘오아시스’ 신선식품 온라인마켓 첫 새벽배송... 1000억대 매출 애널리스트 기업탐방 문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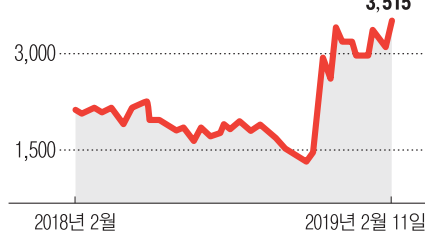
종합 IT솔루션 기업 지어소프트가 자회사 오아시스를 열고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열풍에 동참했다.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탐방 문의도 급증했다.

지어소프트의 자회사인 오아시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우리생활협동조합과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신선식품 유통사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 단일 매출액은 2016년 396억 원에 그쳤지만 2017년 1000억 원을 넘겼다. 작년 역시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확인했다.

특히 작년 8월 온라인 몰을 개설하며 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시작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신선식품 020 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 현재는 ‘마켓컬리’와 함께 관련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IT솔루션을 갖춘 모회사 지어소프트와의 시너지로 오아시스가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관투자자도 투자에 동참한 상태다. 가치투자 기초의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소액 투자를 지속해왔는데 7월 누적 기준 지어소프트 보통주 71만 766주(지분율 5.03%)를 보유하게 되면

지어소프트 주가 추이 (단위: 원)



서 주식 대량 보유자에 포함됐다.

실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예비 투자자들의 기업탐방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 지어소프트 IR담당자는 14일 “최근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오아시스 몰 관련해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회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탐방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자회사 실적에 힘입어 올해 지어소프트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어소프트의 예상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193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95% 증가한 87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지어소프트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자회사 오아시스의 실적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캠시스 “초소형 전기차 ‘쎬보-C’ 4월 출시”

지난달까지 사전예약 1200대

캠시스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초소형 전기차 쎬보(CEVO)-C가 4월 국내에 출시된다. 캠시스 관계자는 14일 “3월 열리는 서울국제모터쇼에 참가한 후 4월부터 사전예약 물량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한다”며 “지난달까지 사전 예약 수는 1200대”라고 밝혔다.

캠시스는 지난해 10월 열린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한 바 있다. 기존 B2B, B2G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모터쇼에서는 개인 고객을 중심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캠시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환경부에서 전기차 판매 관련 인증을 받고 있다”며 “원가, 생산량, 보조금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중국 내 협력업체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조달하고 있다”며 “우선 정부 보조금이 확정돼야 개인 물량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캠시스가 4월부터 판매할 전기차는 중국에서 조립을 완성한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다. 향후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생산 조립 공장에서 반조립 형태로 국내 생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정희 기자 ljh@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재건축 규제에… ‘아파트 리모델링’ 급부상

B등급 수직·C등급 수평 증축
가구수 최대 15%까지 늘려
오금 아남, 사업계획 승인 완료
개포 대청아파트 주민 동의 착수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는 가운데 그동안 대안으로 여겨졌던 재건축사업이 정부의 규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추진이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를 적용받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재건축단지들이 부동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이 경과됐어도 안전진단 D 또는 E등급을 받는 것이 어렵고 용적률 규제, 초과이익환수, 조합원 지위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인 주요 단지

단지명	시공사	추진단계
개포 우성9	포스코	착공
오금 아남	쌍용	사업계획승인 완료
이촌 현대	포스코	사업계획승인 진행 중
대치 선경3	금호	사업계획승인 접수
송파 성지	포스코	
분당 한솔5	포스코 쌍용	
분당 무지개4	포스코	
잠원 한신로얄	한산	
분당 노트3	포스코	건축심의 완료
분당 노트4	포스코	
신정 쌍용	포스코	
개포 대청	포스코	
등촌 현대1	포스코	
평촌 목련2	쌍용	건축심의 진행 중
개포 대치2	대림 현산	
평촌 목련3	쌍용	
대치 현대1	현산	
분당 매화1	포스코	
옥수 극동	쌍용	안전진단 완료
등촌 프라자	대림	
등촌 부영	포스코	안전진단 진행 중
청담 건영	GS	시공사 선정
점원 헤미리	-	시공사 선정 예정
등촌 현대2	-	

※출처 : 서울시, 경기도 등

양도 금지 등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곳들이 적지 않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

요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보다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 별도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추진 기간이 재건축보다 짧은 현실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 꼽히고 신축과 동일한 구조 안전성과 내진능력, 친환경·에너지 절감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장점이 부각되면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추세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달에 개포 우성9차 리모델링 사업이 착공했으며, 오금 아남, 이촌 현대,

잠원 로얄, 분당 한솔5단지, 무지개4단지 등의 단지들이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거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했다.

분당 노트마을 3, 4단지도 이달 24일 권리변동총회를 거쳐 3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조합설립인가 동의와는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행위허가 신청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 단지들은 단지별로 전체 소유주 중 93%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기존 822가구를 3개층 수직증축을 통해 900가구가 넘는 새로운 단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건축안전성검토 등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위한 주민 동의에 착수한 상황으로 강남 최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옥수 극동, 등촌 부영, 청담 건영, 대치 현대1차, 평촌 목련2, 3단지 등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들은 각각 안전진단, 심의 등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주택분양 경기 ‘똥방’ ‘흥행불패’ 서울도 위축

주택 분양경기에 적신호가 켜졌다. ‘흥행불패’를 자랑하던 서울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4일 이달 전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64.3으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기준치 100을 여전히 밑도는 수치다. 분양경기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눈여겨볼 지역은 서울이다. 불황을 모르던 분양 지표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의 이달 HSSI 전망치는 78.1로 나타났다. 주산연이 관련 조사를 시행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진 것은 분양 경기

정부 주택시장 규제 강화 영향 HSSI 전망치 78.1 역대 최저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짙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의 1월 HSSI 실적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77.1로 집계됐다. 실적치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65.0을 기록한 작년 9월이다. 연구원은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분양사업 기대감이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수치도 낮아졌다. 인천과 경기도의 1월 HSSI실적은 60선으로 떨어져 똑같이 66.6을 기록했다. 전망치는 인천이 74.7, 경기도가 71.4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달 지방의 HS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62.0으로 나타났다. 1월 HSSI 실적치는 52.7로 같은 기간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조사 대상인 지방 14개 가운데 절반이 1월 HSSI 실적치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노량진 고시촌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에 20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특히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밀집돼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속해 서울시장이 사업 대상지를 지정한 첫 사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 3층-지상 18층(연면적 2만1196.02㎡)에 총 299가구(공공임대 39가구·민간임대 26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1층엔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되고 지상 1~2층엔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 총 148면 가운데 10%이상을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든다.

서울시는 올 6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월 입주자 모집 공고, 2021년 7월 준공할 목표를 세웠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촉진 지구로 진행된 사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올해 첫 동작구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

서울시장 사업 대상 지정 첫 사례 2021년 준공 목표 299가구 건립

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통해 5년(2018~2022년)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토포니시아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능이 아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일 말고 실용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간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69쪽 지음 / 2019년 / 국문판행 / 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깊이 있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정호 지음 / 2019년 / 해문당 / 15,800원

진선미 여가부 장관, 3040세대 1인가구 남성들과 간담회

“혼자 식당가면 자리 안내줘요” 독거남의 설움

1인 가구 30%...정책 4인 가구 중심
“법·제도적 차별 개선 필요” 호소

“식사 문제가 제일 크죠. 혼자 가면 자리를 주지 않아서 2인분을 사셔야 할 때도 있어요. 월세 부담도 큼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3, 4인 가구 중심이잖아요. 주택 부담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어요.”(김명철 씨, 38세)

“이제 배달도 1인 배달이 가능해지도록 바뀌었는데, 정책은 더디거든요. 배달 앱을 만드는 사업자들에게 정책을 맡기면 더 잘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김동진 씨, 41세)

14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은혜공동체주택에 모인 3040세대 1인 가

구 남성들은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배우 이상운(39) 씨를 포함해 3040세대 1인 가구 남성 7명이 참석했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561만9000가구(28.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7%(279만2000가구)가 1인 가구 남성이었다. 30·40대 비율은 각각 62만1000가구(22.2%), 54만5000가구(1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혼밥’을 할 때 겪은 애로사항이었다. 이상운 씨는 “집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봉구 은혜공동체주택에서 진행된 30~40대 남성 1인 가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여성가족부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해도 파, 마늘, 양파 같은 게 한 묶음으로 팔고 있어서 한 번 먹으려면 반 이상이 썩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

1인 가구 남성들은 주거와 관련된 제도적 차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진우

(32) 씨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 175만 원 정도인데 서울 원룸 월세가 평균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며 “월급의 25%가 넘다 보니 보증금도 없다. 친구들 6명과 같이 사는데 우리끼리 난민촌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김명철 씨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3, 4인 가족 중심이다 보니 1인 가구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서 “1인 가구는 대책 없이 내몰리는 상황이다. 개인 빈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 예전에 있었던 빈민촌이라는 개념이 어딘가로 안 보이게 흩어져 있을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인 가구가 겪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고 했다. 김동진 씨는 “자치구에서 설이나 명절에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통 시장에서 하는 모임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꺼린다”며 “남자들을 위한 활동도 별로 없을 뿐더러 주로 낮 시간에 주부들을 위한 활동들이다. 모임 공간이 많았으면 한다”고 했다.

진 장관은 “3040세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며 “삶을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ksh@

〈코오롱 전 회장〉

檢, 차명주식 숨긴 이용열 불구속기소

코오롱생명 주식 38만株 소유·매도과정 보고 안해

차명주식 보유 현황을 숨긴 혐의를 받는 이용열(사진) 전 코오롱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용열 전 코오롱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차명주식 38만 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이동찬 회장이 별세한 2014년 11월 8일 당시 주가 기준(주당 4만8450원)으로 184억 원가량이다. 2014년 9월 당시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102만8000주(지분율 15.4%)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보유주식의 37%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받은 셈이다. 더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유상황 보고 과정에서 17회가량 소유, 매도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 중 4만 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도로 가득 채운 소방차

1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인근 철물점 밀집지역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직원 강제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유죄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위력을 사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솔 기자 charmy@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COVERSTORY 다시 시작하는 인턴, 일터로 갑시다

PART1 시니어의 재취업 방법 - “취업이나 창업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PART2 시니어 일자리 정책으로 본 ‘시니어 인턴 제도’

PART3 인턴 도전을 위한 Atoz - 이상보다 적성으로, 스펙 아닌 스토리로

PART4 2018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기

PART5 시니어 인턴십 기업 사례 - ‘GS리테일’, ‘편아이에프’

PART6 인턴을 거쳐 정직원이 된 시니어를 만나다

PART7 60세 이상의 인턴 일자리 ‘실버인재센터’가 책임진다

PART8 베이비붐 세대 취업 어떻게 - 중장년 성공 취업을 위한 5계명

월예이징 끊기 힘든 담배, 작심삼일 벗어나는 방법은?

작심삼일, 1월을 벗어나 2019년이 막을 해질 즈음 떠오르는 단상이다. 동해로 솟아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수년간 벗어나지 못한 일상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 늘 “이번이 마지막 한 대”라고 각오하지만 어느새 한 개비의 담배가 또 손에 들려 있다. 그리고 자책한다.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서홍관 교수는 “일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포기 않고 계속 도전하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완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난 아직도 청년이요!

이상적인 병원 터는 어디일까. 마법 의학의 아버지 리제스는 도시 곳곳에 신성한 고깃방이를 걸어두고 창고를 물색했다. 가장 부패가 덜 된 고깃가 걸린 곳에 병원을 세웠던 것. 한의학 강두집

원장은 조용한 자연 속에 병원을 꾸리는 게 옳다고 본다. 사람과 자연의 양보는 생각으로, 해서, 차츰 후미진 산속으로 귀촌했다. 굳이 외진 산골까지 찾아들 한자가 맞거나 될까마는 그는 즐겁다. 자신의 지향과 실천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하는 인턴, 일터로 갑시다

Intern

COVERSTORY 다시 시작하는 인턴, 일터로 갑시다

PART1 시니어의 재취업 방법 - “취업이나 창업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PART2 시니어 일자리 정책으로 본 ‘시니어 인턴 제도’

PART3 인턴 도전을 위한 Atoz - 이상보다 적성으로, 스펙 아닌 스토리로

PART4 2018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기

PART5 시니어 인턴십 기업 사례 - ‘GS리테일’, ‘편아이에프’

PART6 인턴을 거쳐 정직원이 된 시니어를 만나다

PART7 60세 이상의 인턴 일자리 ‘실버인재센터’가 책임진다

PART8 베이비붐 세대 취업 어떻게 - 중장년 성공 취업을 위한 5계명

월예이징 끊기 힘든 담배, 작심삼일 벗어나는 방법은?

작심삼일, 1월을 벗어나 2019년이 막을 해질 즈음 떠오르는 단상이다. 동해로 솟아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수년간 벗어나지 못한 일상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 늘 “이번이 마지막 한 대”라고 각오하지만 어느새 한 개비의 담배가 또 손에 들려 있다. 그리고 자책한다.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서홍관 교수는 “일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포기 않고 계속 도전하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완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난 아직도 청년이요!

이상적인 병원 터는 어디일까. 마법 의학의 아버지 리제스는 도시 곳곳에 신성한 고깃방이를 걸어두고 창고를 물색했다. 가장 부패가 덜 된 고깃가 걸린 곳에 병원을 세웠던 것. 한의학 강두집

원장은 조용한 자연 속에 병원을 꾸리는 게 옳다고 본다. 사람과 자연의 양보는 생각으로, 해서, 차츰 후미진 산속으로 귀촌했다. 굳이 외진 산골까지 찾아들 한자가 맞거나 될까마는 그는 즐겁다. 자신의 지향과 실천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신라문화와 만남 사랑

미고 기다릴 때, 아이는 결대로 자라난다.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 저자 이규현

뉴스Queen 내려놓고, 시니어와 동행하자. 유영미 SBS 아나운서

밀양과 진해의 30대 배우 딸자. 한복 입은 박준규 가족 나들이

타박타박 도보여행, 알싸한 겨울 바다를 벗삼아 걷는 길 ‘외옹치 바다항리’

겨울에는 원지 속초에 가야 할 것 같다. 푸른 바다와 청초호, 아바이마을, 명금정에서 봤던 시냇길, 이 땅의 부딪히며 먹었던 물회의 추억이 겨울에 남아 있어서일까. 아바이마을 속초 바닷길과 마을길, 시장길을 구석구석 누비는 재미에 빠져 남쪽 외옹치항에서 북쪽 장사항까지 걷고 싶었다.

머니테크 공사가격 ‘폭탄’...집 한 채 은퇴자 날벼락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연금 박탈 우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가격이 ‘안’을 받고 총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시니어 밭상

올메이드 사할음식

사부사부로 색다르게 즐기는 살날 떡국

부치지 못한 편지

정말인 시민

바다에서 죽어가는 고래, 내 친구에게

“제네릭 접고 신약으로 승부…전립선 치료제 정조준”

메디컬 줌인

유원상 유유제약 부사장

“이제는 제네릭(복제약)이 아닌 제약사 고유의 제품을 만들 때입니다.”

3세 경영인 유원상(45) 유유제약 부사장은 제네릭 대신 신약 개발에 제약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유유제약 본사에서 만난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먹거리 전략을 세워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78년의 역사를 가진 유유제약은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과 뇌졸중 치료제 ‘유크리드’의 개량신약 및 ‘유판씨’, ‘비나폴로’, ‘베노플러스겔’ 등 스테디셀러 일반의약품으로 주목받는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신약을 내놓지 못하며 제약업계 순위 3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도 겪었다.

유 부사장은 유유제약의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할 복안으로 △빅데이터를 적용한 경영 도입 △중앙연구소 통합 개소 등 변화의 중심을 이끌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 개량신약 ‘YY-201’ = 유유제약의 신약 개발 중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전립선비대증 치료 개량신약(YY-201)이다. 현재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글로벌 시장은 5조 원에 이르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00억 원 수준이다. 국내 시장은 아보다트, 프로스



유원상 유유제약 부사장은 미국 메릴랜치 컨설턴트,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를 거친 해외파로 78년의 유유제약의 역사에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그는 “딱딱함(이) 아닌 스타트업과 같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새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유유제약

카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고령자들의 장기복용 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복합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유제약의 YY-201은 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보다트’를 소형화한 ‘두스타’에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를 합친 개량신약을 연구 중이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을 허가받은 후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내 남성환자 942명을 대상으로

국내 2000억…글로벌 시장 5兆 규모

임상3상 허가받아 유효성 확인 예정

10년간 신약 못내자 업계 순위 밀려

빅데이터 경영·연구소 통합 변화 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 부사장은 이 제품으로 탈모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안구건조증 치료 펩타이드신약 ‘YY-10’ = 유유제약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앞세워 안구건조증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신약 YY-101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날씨, 생활환경 등의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간 약 5조 원 이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치료제는 엘러간의 ‘레스타시스’와 사

이어의 ‘자이드라’ 두 종류뿐이다. 유유제약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유 부사장은 “미(美) FDA 승인은 제품이 안전하고 관련 질병에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해 줄 뿐 시장에서 매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YY-101은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YY-101의 경우 기존 제품들과 달리 투약 횟수를 하루 1회로 줄이고, 투약 시 통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분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YY-201·YY-101글로벌 시장이 목표 = YY-201·YY-101의 장기적 목표는 글로벌 시장이다.

유 부사장은 “두 제품 모두 임상 2상·3상 초기 이후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유통망을 보유한 자금력 있는 회사와 손을 잡고 아시아 판권은 소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유제약은 대표 제품인 ‘유판씨’, ‘베노플러스겔’ 등 일반의약품과 제네릭 제품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사장은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는 아직 한류 영향이 미치고 있어 비슷한 가격이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신약 제품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자체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지사 설립 계획도 시사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오픈 이노베이션’ 뭉치는 제약사들

유한양행·애플론, 면역치료제 공동 개발…부광약품은 OCI 투자

제약업계가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비용과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 업계의 협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바이오벤처 투자 등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 1위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R&D 중심 제약사로 거듭났다. 지난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수출에 성공한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도 오픈 이노베이션의 산물이다.

유한양행은 면역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국내 항체신약개발 벤처기업 애플론과 최근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YHC2106’을 도출했다. YHC2106은 중앙미세환경을 조절해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로, 유한양행은 애플론과

함께 단독·병용·이중항체치료제 등 다양한 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사업화를 꾀할 예정이다. 양 사는 지난해 3월에도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YHC2101’을 도출,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미국 항체신약 개발기업 소렌토와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 이문온시아에도 1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 면역항암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IMC-001’의 국내 임상 1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문온시아는 최근 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43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추가 임상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중소 제약사 중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곳은 부광약품이다. 이미 콜루시드, 오르카파마, LSKN, 아인진 등에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회수했으며, OCI와 조인트벤처 비엔오바이오, 항암제 개발 플랫폼 보유기업 다이 나세라퓨틱스 등 다양한 신약 개발 업체

에 투자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회사 내·외부 자금으로 수천억 원대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우수 연구기관 및 바이오 벤처들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지분 참여, 조인트벤처 설립, 연구 협력, 공동 개발 등에 나선다. 현재 전문 연구기관과 유럽·일본 등 제약 선진국의 바이오 벤처들과 논의 중이며, 글로벌 인수·합병(M&A)도 고려하고 있다.

이미 로슈,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전담 투자 조직을 구성하고 유망한 초기 기술을 발굴해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업계는 비용과 시간, 성공률 등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협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올해 연구 중심 병원과 바이오클러스터, 제약사를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SK바이오팜 주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적응증	진행 상황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NDA 심사 개시
솔리암페톨	수면장애	NDA 심사 중
카리스바메이트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임상 2상 진행
멜레노프라이드	희귀 신경계 질환	임상 2상 준비
SKL13865	집중력 장애	임상 1상 완료
SKL20540	조현병	임상 1상 진행
YKP10461	파킨슨병	임상 1상 진행



SK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6000억 규모 기술 수출 성공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에…

유럽 중추신경계 수출 신기록

SK가 독자 개발한 혁신신약 ‘세노바메이트’가 6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내 상업화를 위해 스위스의 아벨 테라퓨틱스와 5억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유럽 지역 상업화를 위해 이뤄진 중추신경계 기술수출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바이오팜은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 1억 달러를 받고 시판 허가 등 목표 달성 시 나머지 4억3000만 달러를 수령한다.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 규모에 따른 로열티도 받게 된다. 또한 아벨의 신주 상당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확보해 향후 기업 가치 제고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아벨은 미국 노바캐스트 캐피털 메니지먼트와 유럽 LSP 등 헬스케어 분야 유력 투자자들이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 개발·판매를 위해 합작 설립한 회사다.

세노바메이트 개발에 전문인력과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투입, SK바이오팜이 보유한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유럽의 약청(EMA)에 신약 판매허가 신청을 제

출할 계획이다. EMA 시판 허가 시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32개국에 판매된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 성장세가 견고한 데다 유럽 내 난치성 환자 대상 약물 수요도 증가해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상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유럽 시장 특성을 고려해 현지에서 거점을 둔 파트너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는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 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8년 62억 달러(약 6조80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70억 달러(약 7조8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세노바메이트의 신약 가치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아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럽 시장에 가능한 한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신약판매 허가 신청서(NDA) 심사를 개시, 11월 시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K바이오팜은 2020년 미국 내 판매를 시작으로 유럽을 거쳐 향후 한·중·일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노바메이트의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살살 녹여먹으면, 칼칼한 ‘목 통증’ 해결

건강한 픽템

동화약품 ‘모가프텐’

인후염 증상 완화 치료제

프로폴리스 추출물 함유



최근 감기나 독감(인플루엔자) 증상으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 중 유해물질로 인해 목 안이 가렵고 짚은 기침을 하는 등 인후염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동화약품은 인후염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제 ‘모가프텐’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모가프텐은 진통 작용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플루로비프로펜 성분으로 인후염 통증 및 연하통 등 여러 증상을 완화한다.

이 제품은 사탕처럼 입 안에서 천천히 녹여 복용하는 트로키 제형으로, 가글이나 스프레이에 비해 약물을 구강과 목에 오래 유지시키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폴리스 추

출물이 함유돼 있으며, 상큼한 레몬 맛으로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

모가프텐의 진통 효과는 복용 15분 이내 나타나며 4시간 이상 지속돼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성인과 12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이 복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3~6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5개까지, 최대 3일간 복용하도록 권장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최근 감기나 독감, 미세먼지 등으로 인후염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며 “모가프텐은 약을 복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트로키 제형의 치료제로, 빠른 통증 완화 효과로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가프텐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옥 토틀마루서 스파하실래요?

올 댓 트립

한국 온천여행 ②서울·인천

따스함이 간절한 계절이다. 겨울철 물놀이 트렌드가 온천에서 워터파크로 변하는가 싶더니, 신개념 스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스파로 발길이 향한다.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바쁜 도심 속에서도 따끈한 힐링이 가능하다. 지독한 추위로 이 겨울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도심 속 스파로 이겨내자.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서울·인천에 있는 스파 명소를 추천한다.



온천 부럽지 않은 한방카페

서울 종로구 서촌 '솔가현'

한약재를 넣은 뜨끈한 물에 발을 담그고 내 몸에 딱 맞는 한방차를 마시면 게르마늄 온천이 부럽지 않다. 도심 속 한방 족욕 카페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 자리잡은 솔가현은 이름처럼 솔 향기가 가득한 곳이다. ㄷ자 구조 전통 한옥을 개조하면서 소나무를 사용한 덕분이다. 널찍한 마당에도 소나무 원목을 깔았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당 한쪽에 있는 실외 족욕장이다. 이곳에서 기와지붕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보며 족욕을 즐길 수 있지만, 아쉽게도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아늑한 실내 족욕장을 이용하자. 편백으로 만든 족욕기에 체질에 맞는 약초를 넣고 발을 담그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정수리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솔가현의 족욕은 다양한 한방차와 함께 할 때 효과가 배가된다. 속이 편안해지는 보위차, 눈이 맑아지는 청안차, 몸이 개운해지는 신통차 등 10여 가지 한방차는 솔가현 주인장이자 25년 경력의 약사인 김미혜 대표가 직접 개발했다.

차를 주문하면 얇게 저며 바삭하게 말린 대추와 볶은 해바라기 씨, 약과 등이 곁들여 나오는데, 모두 건강에 좋고 차와 잘 어울린다. 모래시계로 차 우리는 시간도 맞출 수 있다. 벽과 천장, 테이블까지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 카페에서 족욕 없이 한방차만 즐겨도 개운하다.

카페와 나란히 붉은 힐링룸은 맥반석과 게르마늄, 황토를 섞어 만든 바닥재가 깔린 온돌방이다. 40℃ 정도로 바닥을 데우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된다. 4~6명이 자리 잡아도 넉넉한 독립 공간으로, 황토 찜질방에 온 것처럼 친구들과 편안히 쉴 수 있다. 점심시간이라면 솔가현에서 개발한 도토리피자와 발효아채덮밥, 인절미토스트 등을 주문해 먹어도 좋다.

한의사가 달이는 맞춤 약차

서울 안국동 '티테라피 행랑집'

경복궁을 사이에 두고 솔가현과 마주한 '티테라피 행랑집'도 한방 족욕 카페다.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이곳에는 한방 입욕제를 넣은 족욕장과 현직 한의사가 300여 가지 한약재로 개발한 한방차가 있다. 북분자, 감잎, 굴피, 울무 등으로 만든 한



방차는 티백으로도 출시했다. 겨울에는 실외에 있는 족욕장을 운영하지 않지만, 한방차뿐 아니라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마음까지 달래는 체질 족욕

서울 동교동 '악다방 봄동'

서촌의 솔가현이 전통 한옥 스타일이라면, 홍대 인근의 '악다방 봄동'은 현대적인 분위기다.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양옥을 개조해 카페와 족욕장을 만들었다. 젊은 한의사들이 의기투합한 힐링 카페로, 지하에는 예약제로 운영하는 한의원도 있다. 카페 주방에는 수십 가지 한약재를 갖춘 약장이 보인다. 원래 있던 벽과 기둥, 계단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트렌디하게 꾸민 실내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깔끔한 조명 아래 널찍하게 자리잡은 테이블은 여유가 느껴진다.

카페 1층 통유리 창가에 있는 족욕장은 해가 잘 들어 겨울에도 따뜻하다. 평소 발의 상태에 따라 4가지 입욕제 중 하나를 골라 맞춤 족욕을 할 수 있다. 몸의 뿌리를 채워주는 6가지 기본 약차와 마음까지 다스려주는 48가지 맞춤 약차 모두 이곳을 공동 운영하는 한의사들이 개발했다.

약차는 한약의 약효는 그대로 살리면서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과 향으로 만들었다.

한국형 찜질+유럽형 스파

인천 중구 영종도 '씨메르'

한국형 찜질 문화와 유럽식 스파를 결합한 곳이 있다. 서해 일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인피니티풀을 비롯해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듯한 케이브스파, LED 이미지로 다룬 시공간을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버추얼스파 등 특별한 스파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 자리한 씨메르는 2018년 9월에 문을 열었다.

씨메르는 하늘을 뜻하는 프랑스어 'ciel'과 바다를 뜻하는 'mer'를 합친 이름이다. 1만3000여 ㎡(4000평) 규모로, 동시에 약 2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규모만 큰 게 아니다. 구석구석 불수룩한 눈이 반짝 뜨인다. 미술관처럼 깔끔하게 연결된 복도, 열대지방을 연상케 하는 의자, 도서관 콘셉트로 꾸민 휴게시설까지 매력적인 공간이 이어진다. 스파에서 자꾸 카메라를 드는 이유다.

씨메르는 크게 아쿠아스파존과 찜질스파존으로 나뉜다.

아쿠아스파존은 발랄하고, 찜질스파존은 편안하다. 아쿠아스파존의 대표 공간은 워터플라자로, 이탈리아 산마르코광장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넓은 수영장에서 남녀노소가 사계절 내



❶ 서울 종로구 서촌에 있는 ㄷ자 구조 전통 한옥을 개조한 솔가현은 마당에도 소나무 원목을 깔았다. ❷ 솔가현은 족욕과 한방차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❸ 통유리 창가에 마련된 악다방 봄동의 족욕장. ❹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 위치한 씨메르의 야외 풀장. ❺ 동굴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씨메르 동굴스파.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 곳곳에 놓인 알록달록한 의자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워터플라자에는 실내 인피티니폴이라는 재미난 공간이 있다. 투명 아크릴로 벽을 만들어 수영하는 모습이 밖에서도 보인다. 친구들끼리 인증 사진 찍느라 바쁘다. 아쿠아클럽은 이름 그대로 클럽이다. 낮에는 편안한 음악이 나오지만, 주말 밤이면 풀 파티가 열리는 클럽으로 변신한다.

4000평 규모… 주말엔 클럽변신

서해부 노천탕… 곳곳이 인생샷

편안한 스파를 원한다면 버추얼스파와 케이브스파를 찾아보자. 버추얼스파는 벽면 가득한 LED 영상이 특징이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기도 하고, 울창한 숲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명상하는 기분이다. 케이브스파는 높은 천장과 어두운 조명으로 유럽의 동굴이 생각난다. 외부 소음과 차단돼 온전히 감각에 집중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다.

이번에는 야외로 나가볼 차례다. 실내 수영장도 좋지만, 알짜한 바람을 맞으며 물을 가르는 야외 수영도 남다른 재미다. 물론 물은 따뜻하다.

야외에서 특별한 공간은 3층 동쪽과 서

쪽에 있는 옥상 수영장이다. 서해로 탁 트인 전경에 가슴이 시원하다. 하늘과 바다, 아름다운 노을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 적당하다.

밀키탕과 히노끼탕 등 노천스파존도 있다. 아쿠아스파존에서 인기 있는 시설은 슬라이드다. 4층 높이에서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쿠아루프&토네이도슬라이드로 워터파크만큼 짜릿한 물놀이를 만끽한다.

아쿠아스파존이 감각적이라면, 찜질스파존은 우아하다. 찜질스파존에는 찜질방 7곳과 휴게시설 2곳이 있다.

자수정방은 북한산 자수정으로 만든 고온 찜질방이다. 이곳에서는 순간적인 고온바람을 일으키는 '핫 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강원도 횡성 굴참나무를 이용한 참숯방, 후쿠오카현 편백으로 꾸민 편백나무방 등 다양한 찜질방이 이어진다. 3층 야외 공간에는 불한증막과 족욕장이 있어 독소를 배출하고 서해를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기 안성맞춤이다.

찜질스파존은 독특한 공간과 함께 세심한 배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찜질방 앞에는 음료수나 소지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이 있다.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며 쉬는 릴렉스룸, 여행 잡지와 책을 여유롭게 보는 커뮤니티룸이 마련되어 온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다. 김소희 기자 ksh@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문, GWI 발표기준)

“아이들이 ‘ 쌤~’ 말문 트며, 소통·공감 시작됐죠”

보육원 아동 볼링 멘토링...유한양행 오창공장 볼링동호회

첫 만남의 어색함, 땀수 뺀이며 개인적 고민 상담하기도
“청소년 멘토 되려고 시작했는데...오히려 배우는 점 많아”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기 위해 시작했지만 되레 배우고 느끼는 점이 더 많습니다.”

유한양행 오창공장 볼링동호회는 4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내 대표 동호회 중 한 곳이다. 평소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볼링을 통해 친목을 다지던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의기투합한 것은 지난해 6월. 지역 보육원인 늘푸른아동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볼링 멘토링 봉사에 나서면서부터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여 명의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과의 첫 만남은 훈훈함보다 어색함이 앞섰다. 대부분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듯이 시큰둥한 모습으로 음악을 듣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반응에 봉사자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볼링이 공통의 화제거리가 되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변했다. 봉사자들은

이 볼링을 가르치고 자세를 바로잡아 주면서 참석한 청소년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번째 만남부터 아이들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다. 먼저 얘기를 건네며 웃기도 하고, 들뜬 표정으로 함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밝아진 모습에 직원들의 보람도 커졌다. 꾸준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 쌤~’이란 친근한 호칭으로 봉사자들을 부르는 등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다.

볼링 멘토링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설비 기술팀 차국환 기사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란 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볼링핀이란 공공의 적을 상대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스트라이크를 치고 마음껏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고 말했다.

봉사자들은 볼링 수업뿐만 아니라 의지



유한양행 오창공장 볼링동호회의 볼링 멘토링 봉사에 나선 직원들이 늘푸른아동원의 청소년들과 볼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할 곳 없는 청소년들의 든든한 형, 누나 역할도 하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고민이 많고 방황하기도 하는 청소년들에게 볼링을 통한 스포츠 멘토링은 활동하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간이다. 신체적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멘토링으로 새로운 길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푸른아동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 중

오창공장 볼링동호회의 볼링 수업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한다.

봉사자들도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만족도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볼링 멘토링 봉사는 월 1회 오창볼링장에서 진행되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설립
초대 회장 이충재 前행복청장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간정보산업 성장 및 혁신 성장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가 결성됐다.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발기인단은 14일 산·학·연·관은 물론, 언론·시민단체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15일 서울 더케이(The-K) 호텔에서 개최하고총연합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에는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추대됐다.

한국공간정보 총연합회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설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및 관련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수그룹, PGA 케빈 나-존 허 후원



이수그룹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케빈 나(36·나상욱·왼쪽 사진)와 존 허(29·허찬수) 선수의 서브 후원에 나선다.

이번 후원 계약에 따라 이수그룹은 연간 후원금 및 대회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우승 특별 보너스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게 된다.

두 선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 대회부터 의류에 이수그룹 로고를 달고 활동하게 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이투데이 미디어 영상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



이투데이 미디어 영상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이 14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김상철(왼쪽 네 번째) 이투데이 미디어 대표가 ‘강통전세? 사망토론 3분으로 딱~ 이해하자!’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정훈(다섯 번째)·배준형(두 번째) 씨, ‘핀테크란 무엇일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죠!’로 우수상을 수상한 주재현(세 번째)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삼성디스플레이, 쏠 사업장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삼성디스플레이가 13일 본사가 위치한 기흥캠퍼스를 시작으로 2월 말까지 전 캠퍼스에서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은 13일부터 이틀간 기흥과 아산 1캠퍼스에서 실시한 이후 20~21일에는 천안캠퍼스에서, 26~27일에는 아산2캠퍼스에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연초 방학과 명절 연휴로 인해 헌혈이 급감, 혈액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매년 2월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2000~3500여 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동참해 왔으며, 현재까지 1만6500여 명이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포스코 인재창조원, 지역 초교 찾아 ‘주니어 인성교실’

포스코는 인재창조원이 12일 포항 청림초등학교와 광양 제철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주니어 인성교실-꿈과 희망 With POSCO’ 프로그램 첫 차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니어 인성교실은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인재창조원과 포스코 직원이 강사로 나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린이를 육성하는 교육 나눔 활동이다.



재능을 기부한 직원들은 50명으로 ‘With POSCO 실천의 한 걸음’이라는 타이틀로 실시한 사내 공모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빛낸 기업인’ 27명 동판 헌정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헌정식’을 열고, 중소기업을 빛낸 기업인 27명의 동판을 헌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산업훈장 수훈 또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받아 국가 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동판을 제작했다. 동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다.

이날 새롭게 동판이 헌정된 27명의 기업인을 포함해 총 220명의 동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시돼 있다. 동판이 헌정된 기업인 중에는 기술개발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기업인, 업력 50년을 넘은 장수기업으로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김종구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정욱 △정책기획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김정희 △농업생명정책관 윤동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안용덕 ◇주재관 교체 △외교부 강효주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과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연구소 교육과전 안중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강금식 △일자리정책평가과장 권진호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최준하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편도인 △퇴직연금복지과장 여성철 △진주지청장 강성훈 △목포지청장 김남용 △여수지청장 장영

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종호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도시경제과장 이상주 △재정담당관 이정희 △도시경제과장 배성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오진수 △정보화통계담당관 문석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김영현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장 정승현

◆특허청 ◇과장급 전보 △심사품질담당관 윤병수 △특허심판원 심판관 조성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센터장 전보 △연구기획본부장 윤장호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권태수 △기술사업화센터장 오지택 △경영지원본부장 박대식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부장 정영일

부음

40년 ‘간장 명인’ 오경환 샘표 부사장 별세

40여 년간 한국 간장 연구에 열정을 쏟았던 ‘간장 명인’ 오경환 샘표 식품 부사장이 향년 66세로 13일 작고했다.



지난해 12월 샘표식품 부사장에 선임된 고 오경환 부사장은 샘표 이천공장의 공장장으로 1978년 입사, 41년간 샘표식품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2000년 생산본부장에 취임한 이래, 20년째 샘표 간장 생산을 총괄해왔다. 최근까지 장류발전연구회 회장, 경인 지역 HACCP 발전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활동해왔다. 또,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자문위원, 한국 장류 협동조합 자문위원,

한강 유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오 부사장은 또 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상공의 날 국무총리 포상을 포함해 2006년 2월 식품위생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4년 6월 환경의 날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샘표식품은 “오 부사장은 한국의 전통장(醬)과 발효에 몰두해 업계 최초로 조선간장을 대량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등 끊임없이 우리 맛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이천 효자원 장례식장 207호·208호로, 발인은 16일 오전 6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종일 씨 별세, 이상윤(한국은행 전 산정정보국 부국장)·상열 씨 부친상, 김용일·송수재 씨 장인상 = 13일, 경기도 군포 지샘 장례식장(1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10-4073-5148

▲김춘자 씨 별세, 권준학(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씨 모친상 = 14일, 평택시 오성면 농협연합장례식장 3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031-684-6444

▲박영주(전 유한양행 전무, 전 유한화학 사장) 씨 별세, 박승준(현대상선 구주 영업팀장)·승호(삼성SDS 수석 컨설턴트)·정원·숙원 씨 부친상, 성계용·조인식(이피케이㈜대표이사) 씨 장인상, 정은영·지민주 씨 시부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3410-6902

대방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 교수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금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전공이 같아도 어려서부터 토론에 익숙지 않은 탓에 자칫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시작하지 않거나 조금 어색해지면 멈추는 경우가 많다. 경직된 대학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선생과 논쟁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 교수들의 화제는 전공이 다르면 골프와 와인이고, 전공이 같아도 골프와 와인이다. 그런데 미국 교수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문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카이스트 총장을 지낸 서남표 교수의 말이다. 다소 과장된 일반화이겠지만 찢리는 구석이 있다. 교수들은 연구실 안에 있으면 각기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인성주(一人城主)가 되기 쉽다. 전공이 세분화될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일본말이라 조금 쓰기 주저되지만, 이른바 ‘나와바리(순화된 우리말: 구역)’라는 것이 있어 다른 교수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금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전공이 같아도 어려서부터 토론에 익숙지 않은 탓에 자칫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시작하지 않거나 조금 어색해지면 멈추는 경우가 많다. 동료그룹(peer group) 간의 논의가 부족하더라도 연구실 내의 대학원생 등 제자들과의 논의는 활발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 (2) -학문 간 소통의 부재

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된 대학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선생과 논쟁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공을 불문하고 학문을 논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이다. 영미의 대학은 애프터눈티(afternoon tea) 전통을 이어, 오후 시간 패컬티 라운지(faculty lounge)에 모여 다과를 하며 전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문이 지금처럼 분화되기 전, 동서를 막론하고 학자들은 철학, 과학을 가릴 것이 없이 함께 논의하였다. 지금은 학문의 과도한 갈라치기, 즉 분과학(分科學)으로 인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넘어 다른 분야를 쳐다볼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엄두도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때로는 인접 학문 분야의 상식적 수준의 논의라도 다른 학문 분야에 큰 깨달음을 주고 발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미국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목초지를 공유로 하면 소를 방목해 황폐해지고 말 것”으로 사유화함으로써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 ‘The Tragedy of Commons(공유지의 비극)’를 게재했다. 이 과학 논문은 경제학에 큰 영향을 주어 후에 노벨경제학상이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법학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당화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생물학, 경제학, 법학이란 서로 이질적인 학문을 넘나드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학문의 놀라운 발전이 가능했다. 벌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수분(受粉)을 돕듯 모름지기 벌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20세기 전후 비엔나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었다. 한스 켈젠(Hans Kelsen)은 역사상 법학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학자 중 하나다. 고 심현섭 교수의 번역에 따르면 켈젠의 순수법학은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클림트(Klimt)의 신예술, 윈

베르크(Schoenberg)의 12음계 음악이 있는 비엔나의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 철학·심리학, 미술, 음악이 법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백남준이 뒤상(Marcel Duchamp)과 케이지(John Cage)에게 크게 영향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음악으로 시작하여 미술에 전착하되 미술을 음악처럼 했던 백남준은 벌과 같은 예술가였다. 필자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과 관련한 저작권 논문을 쓰고 있다. 마음먹은 지 13년이나 되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갈지자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어떤 글이 나올지 모르지만, 백남준의 예술이 법학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곤 한다. 필자는 올해 3월부터 연구년을 갖게 되었다.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이 글을 마지막으로 ‘대방로’ 집필을 마친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CEO 칼럼



민경선
커뮤즈파트너스 대표이사

에어비엔비의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도 화선이 된 공유경제의 신드롬. 무분별한 재화 낭비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면서도 소유 없이도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어 인기였던 공유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공유경제 모델의 한계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신흥 강자로 대두되고 있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의 질주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경제라는 용어 앞에 구독이라고 쓰곤 있으나 그 어원을 보면 ‘접속(access)’이다. 구독경제는 연결만으로도 소유나 공유 이상의 지출 대비 만족감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애써 옛 구매 행태를 비유하자면 신문이나 우유의 정기배달 방식, 정수기나 자동차의 리스(Lease)와 유사하거나 단순 확장판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기획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게 구독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AI(인공지능)의 첨단 분석 및 응대 기술과 클라우드 및 스트리밍의 저장 및 전송 기술 그리고 사물인

불황기에 찾아온 ‘구독경제’의 당위성

터넷과 빅데이터의 분석 및 적용 기술이 더해져야만 제대로 된 ‘구독경제’를 이룰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적용된 재미의 지속적 창출이 있어야 하고, 이용자가 언제 해지하든 여타의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이별해줄 조건이어야 한다. 구독경제를 표방하려면 일말의 의심받을 썬수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불황기라면 더더욱 잘 맞아떨어질 수 있기에 사업을 하는 필자에게 있어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던가. 난세에 난 영웅이 바로 구독경제의 패러다임인 듯싶다. 구독경제의 완전무결한 성공모델의 효시는 ‘넷플릭스’다. 적은 월정료를 내고 무제한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용 패턴을 실시간에 분석해 제시해주는 체계는 ‘귀자니즘’에 익숙한 Z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유료회원이라도 해지하고 싶으면 언제든 접속을 해제하면 될 뿐 위약금을 비롯해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 얼마이지 않으니 만족도는 오히려 더해지고 입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된다.

넷플릭스의 성공 신화를 쫓다가 혼쭐나는 기업도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인 무비패스는 월 9.95달러(약 1만1100원)의 이용료로 전국의 90%가 넘는 오프라인 극장 어디에서나 매일 영화 한 편씩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300만 명이 넘는 유료회원을 얻었다. 성공하는가 싶지만 우려대로 극장에 내줘야 할 무료 티켓 값이 1억 달러(약 1121억 원)가 넘는 등 누적 적자에 허덕이며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용자에게만 좋을 뿐 사업의 선순환 및 확장성이 부실해 실패하고 있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획만 탄탄하다면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매력적인 기회이다.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다. 불황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독경제임은 틀림없으니. 구독경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일 각 테일 한 잔씩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월 9.99달러(약 1만1200원)의 후치(Hooch) △면도날 정기배송 플랫폼으로 320만 명의 유료회원을 가지고 질레트의 미국 시

장 점유율을 20%나 떨어뜨린 달러 셰이브 클럽 △애완견의 간식과 장난감을 정기 배송하는 바크박스(Barkbox)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미박스를 비롯해 W카페, 데일리샷, 밀리의 서재, 무릉외갓집, 언니네땃밭, 만나박스, 한섬박스, 먼슬리 코스메틱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고 행동한다. 구독경제 스타트업의 기개에 중견기업도 기를 쓰지 못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대중은 효용이론에 따라 더 만족스러운 곳에 돈을 지불하기 마련이다. 썬수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고 현혹으로 만든 매출은 연속되지 않음을 이미 경험했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상호 윈윈의 요소를 찾아야만 알려지고, 찾아오고, 경험하고, 유지되며, 확장되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 광고보다는 입소문에 적합해 부적절한 낭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적게 먹되 꾸준히 가자는 디딤돌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구독경제를 실행하기에 적기다. 필자도 구독경제의 매력에 푹 빠져 요즘을 기획하고 있다.

☆ 갈릴레오 갈릴레이 명언
“누구도 사람에게 그 무엇을 가르칠 수 없다. 다만 그가 자신의 내면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탈리아 천문학자·물리학자·수학자.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그는 자유 낙하운동 및 관성의 법칙을 발견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地動說)을 믿고 이를 발전시켰다. 그는 라틴어를 고집하던 당시 학자들과 달리 자신의 연구 업적을 시민들도 읽을 수 있게 이탈리아어로 썼다. 오늘이 그의 생일. 1564-1642.
☆ 고사성어 / 청출어람(靑出於藍)
‘푸른색은 쪽(靑)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을 비유한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성악설(性惡說)을 창시한 순자(荀子)의 권학편(勸學篇)에 나오는 말이다.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된다(學不可以已).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靑取之於藍而靑於藍) 얼음은 물이 이루었지만 물보다도 더 차다(氷水爲之而寒於水).”
☆ 시사상식 / 소유효과(Endowment Effect)
사람들이 같은 물건이라도 자신이 오래 소유한 것에는 특정 가치를 더 높이 부여하려는 과대평가 습성을 말한다. 미국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라가 이렇게 불렀다. 한 병에 5달러 주고 산 와인이 50달러가 됐는데도 내다팔려고 하지 않는 심리 상태는 이 효과 때문이다.
☆ 우리말 유래 / 땡잡다
땡땡에 큰 수나 행운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골패(骨牌)나 투전 따위의 노름에서 같은 패를 잡는 것을 ‘땡’ 또는 ‘땡땡구리’라 했다. 이때 높은 굵수에 해당돼 대개 상대방을 이기는 데서 생겨났다.
☆ 유머 / 경험자는 안다
젊은 사장이 할머니에게 하소연했다.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제 여비서를 파면하는 거였어요.”
“거 참! 네 아내도 네 비서였잖나?”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차민영 자본시장1부/blooming@

사장님께 설 선물이라고요?

이 같은 관행을 알게 된 임직원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지와 상관 없이 일종의 신입 테스트의 장(場)에 오르게 된다. 특히 최근 새롭게 임원 반열에 올랐다면 사장님 집 주소쯤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회사 임직원들이 보낸 명절 선물을 그저 고마움의 표시라며 묵인해 버린 사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일부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물일 수도 있을 것이나, 하지만 맥락상 애정이나 존경이 담긴 선

물보다는 과거 종속국이 종주국에 예를 바쳐 보내던 조공에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사장 본인에게는 작은 성의였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다. 왜곡된 명절 선물 문화를 먼저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부하 임직원들에게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사내 기개를 확립하는 것은 상급자의 몫이다. 어느 조직이든 회사 고위 경영진의 태도는 아래 직급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내부 임원과 직원 사이에서 물품을 주고받지 말자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요구하던 사내 홍보 캠페인을 떠올리니 더욱 씁쓸하다.

이슈&인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소상공인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인천 남동구에서 20년 넘게 전자 부품 업체를 운영한 박지환(가명) 대표는 2011년 인생의 고비를 맞았다. 당시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량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으나 해당 거래처는 해외로 이전해 납품권이 무산됐다. 박 대표 손에 쥐어진 것은 16억 원의 빚뿐이었다. 집 안 가구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나붙었다. 거리로 나갔기 일보직전, 소득공제와 복리 이자를 이유로 가입해 둔 노란우산공제가 한줄기 빛이었다. 압류가 금지된 공제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뒤 박 대표는 관련 부품 특허를 받으며 재기를 위해 다시 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경기 악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가 희망이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고자 2007년 9월 출범한 공제제도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만큼 노란우산공제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작년 한 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수는 약 27만1000명으로 공제 출범 후 가장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장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정욱조(57)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을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나 그간의 보람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공제 출범 이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신규 가입자 수를 기록한 것에 관해 정 본부장은 “썩썩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 대비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돼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확대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출범한 지 만 10년이 되지 않은 2017년에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수는 140만 명을 넘어섰다. 출범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는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 15년이 걸렸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의 20여 년간 공제사업 운영 노하우, 네트워크, 조직·인력·시스템인프라 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과일 것”이라고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작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낸 부담 11조4000억 원 중 약 1조6000억 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했다. 현재는 약 10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가 갖는 경쟁력이 무엇인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까지 180만 명 가입자 돌파를 자신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신규 가입자 증가가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 누적 가입자 140만명
지급 공제금 외 자산 10조 운영
소득공제·금리 등 혜택 커
2022년까지 180만명 자신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지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있다
지표 반영 상승구간만 정하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



노란우산공제를 의미하는 ‘산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곰이’ 캐릭터.

지에 관해 정 본부장은 “소득공제부터 금리까지 경쟁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단언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담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만큼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폐업, 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납입한 부담에 2.7%의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금리 경쟁력도 크다.

정 본부장은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의료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할인 지원 및 경영 상담 등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19종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이 다른 상품과 차별되는 점이자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가입자를 대상으로 폐업 준비지원 교육과 사업 경쟁력 강화 교육 등 교육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희망 장려금 사업 확대도 올해 계획 중 하나다. 희망 장려금 사업은 매출액 2억~3억 원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1년간 매월 1만~2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6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작년에는 5개, 올해에는 강원·충남·전북·전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해 총 9

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만큼 가입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양산, 청주, 광양, 당진 등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장려금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 지원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작년 9월 전보가 있기 전 3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인력정책실장을 지냈다. 최저임금 갈등의 한 가운데서 오래 자리를 지킨 그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공이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공이 제시하는 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 본부장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해야 할 지표를 넣어 상승 구간만 정해 놓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회로 넘어가면 배가 산으로 갈 것”이라며 “대답하는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력정책실장으로서 스스로 평가를 묻자 정 씨는 “나름 선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현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인 것을 고려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으로서 그는 공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출범 10년이 넘어가면서 공제사업이 성숙기에 진입한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복지 서비스 운영을 강화해 소상공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본부장의 자신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누적 가입자 100만 달성까지 19년을 잡았지만, 출범 10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중기중앙회의 인프라 덕에 탄탄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성장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서 공제 가입률을 작년 기준 136만 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 정도로 정부에서도 기대가 크다는 뜻”이라며 “180만 명,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사설

또 동남권 신공항 논란, 갈등만 부추기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대립과 논란이 또다시 증폭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불을 붙였다. 문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공항과 관련,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 않는다면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이 표류하거나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신공항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미 결정된 김해 신공항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영남지역의 갈등을 키운 정치적 화약고였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논란이 본격화했다. 경제성 부족으로 2011년 없던 결로 했지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경남 밀양을, 부산·경남이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강력히 밀면서 지역 간 첨예한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보완하는 대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당시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의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오 시장은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이다. 소음과 안전성 문제,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관문공항, 동북아 물류허브 역

할의 한계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울산과 경남지역 단체장들도 동조해 김해 신공항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부산시는 벌써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셨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소음·안전성 등에서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없다며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검토 시사 발언으로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 신공항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지역이 거주민의 작용한 정치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부·울·경이 주장하는 가덕도나, 대구·경북이 이를 강력 반대하면서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는 모두 나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김해공항 확장의 대안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신공항 논란을 다시 촉발하고, 이미 정해진 사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어차피 지역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민심과 국론의 소모적 분열만 가져올 뿐이다.

한 킷



졸업·입학, 다가온 꽃다발 시즌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시민들이 서울의 한 꽃시장에서 꽃다발을 고르고 있다. 화사한 꽃송이마다 사랑하는 이의 새로운 시작과 마무리를 축하하는 마음을 듬뿍 담는다. 찬바람이 잦아든 날씨가만큼 꽃다발을 사는 이들의 마음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초고속 예열로
한겨울에도 빠른 건조
오직 그랑데에서만

겨울에 건조기를 잘 쓰려면,
예열 시간이 꼭 길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랑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버튼 하나만 누르세요
그랑데만의 초고속 예열 시스템과
360개 에어홀의 고른 바람으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빠르게 건조되니까요



※ 건조시간 57분은 자사 시험법에 따른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실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도/영하 5도 시험조건: 표준코스+스피드모드(건조도 약), DOE 5kg 부하(IMC 45%) 건조기준, 각 해당 온도에 24시간 방치 후 건조 작동

“ 그랑데의 양방향 도어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설치, 사용하세요 ”



자연의 좋은 건조
삼 성 건 조 기 그 랑 데